

江右學派의 形成과 人脈

慶北大學校 文 暲 鉉

目	次
I. 序 言	IV. 德山 首門 鄭仁弘
II. 江右學派의 形成	V. 南冥의 門徒와 人脈
III. 南冥의 生涯와 學問	VI. 結 言

I. 序 言

性理學이 極盛을 이루었던 朝鮮王朝 中期에 있어서 朝鮮은 몇개의 教區로 나누어 各各 特色있는 儒林을 형성했다. 畿湖地方의 牛溪 栗谷學派 湖南 上道の 一齋 李恒 學派 湖南 下道の 河西 金麟厚 學派 嶺南左道の 退溪 學派 嶺南右道の 南冥 學派로 나누어 發達했다. 그리고 그 地域에는 各各 地域的인 傳統 文化의 風土 속에서 特色있는 儒學風을 이루었고, 그들이 支配하는 儒林 세력의 教區를 형성하고 있었다.

그 중에서도 嶺南은 한국 儒學界를 支配하던 性理學의 淵源이었다. 한국 文化의 淵源地인 경상도는 中央에 澆澆 長江 洛東江이 貫流하며 이 長江이 左右道를 갈다 놓았다. 江左측 낙동강 東岸 지역의 慶尙左道와 洛東江 西岸 지역의 慶尙右道는 各各 相異한 儒學風이 형성되어 있고, 공교롭게도 같은 시대에 同甲으로 嶺南 儒學界의 兩大 巨峰인 退溪 李滉과 南冥 曹植이 左右道에 살아 性理學을 같이 연구하여 門徒를 敎育하니 兩門에 天下의 英才가 雲集하여 薰陶를 받아 大成하고, 儒學을 大振시켜 宛然히 道學의 盛世를 이룩했다. 陶山에 李滉과 그 門徒들에 의하여 慶尙左道の 儒學風을 크게 열고 智異山 밑에 曹植이 蟄居하여 學門을 열매 門徒가 雲集하여 右道の 儒學이 크게 펼쳐 南冥學派가 形成되었고, 이들에 의하여 江右學風과 江右學派가 이루어졌다. 이 兩大 名儒는 同年에 出生하여 같은 길을 걸으면서 같은 嶺南에 살면서 서로 欽慕하고 尊敬했으나, 끝내 서로 만나 보지 못하고 書信만을 주고 받았다. 退溪는 山林學派이면서도 機會가 있을 때 마다 中央에 進出하여 높은 벼슬을 살아 正卿에서 亞相에 까지 오르고, 文衡을 典하고, 湖堂에도 뽑혀 天下 英才選拔의 榮光과 文運을 고동틀 기도 했다. 그러나 南冥은 初志一貫 山林學派의 領袖로 끝내 志操를 굽히지 않았던 處士로 마친 高孤飄逸한 선비였다. 退溪가 溫藉鄭重한 學者였는데 對하여 南冥은 豪邁剛直한 處士였다. 그의 氣概는 退溪의 沉重端雅에 對하여 壁立千仞의 氣像에 慷慨

壯健의 性品을 가지고 있었다. 李珥 成渾의 門徒들인 畿湖學派는 黨爭에서 西人에 속했는데 對하여 退溪 南冥의 嶺南學派는 東人에 加擔했다. 東人이 兩分될 때 退溪의 門徒들은 南人에 가담했는데 對하여 南冥의 門人들은 北人에 가담함이 많아 서로 달랐다. 退溪의 學派인 江左學派가 온전한데 對하여 南冥 學派는 隱遁的인 山林學風을 갖었고 現實參與에 있어서는 그의 스승을 닮아 과격했다. 星湖 李瀼은 말하기를

退溪는 小白山 밑에서 나고 南冥은 頭流山의 東쪽에 낳으니 모두 嶺南 땅이다. 上道는 仁을 爲主하고 下道는 義을 爲主하여 儒化와 氣節이 바다가 넓고 산이 높은 것 같다.¹⁾

고 했다. 그 때문에 江右學派 즉 南冥의 門徒에서 實踐的인 憂國愛族之士가 많이 배출되었다. 壬辰倭亂 時의 救國 義兵將들 中에 南冥門徒가 많았으니 金沔 鄭仁弘 郭再祐 趙宗道 등이 모두 南冥의 門人들이었다. 晉州城의 大捷으로 有名한 壯烈無比한 玉碎도 모두 江右學風에서 起因한다. 本稿는 이와같은 江右學風과 江右學派를 연구하여 그 學風學派의 形成過程과 그 學派를 考究하여 한국의 선비정신의 精華요 源流인 慶尚右道の 江右學風을 밝히고져 하는것이 本稿를 개진하는 所以라 하겠다.

II. 江右學派의 形成

江右 즉 경상도 右道는 慶尚道 左道와는 歷史와 傳統 文化를 달리한다. 慶尚左道는 옛 신라의 故土로서 千年 신라의 전통을 연綿히 이어오는 전통의 고장이다. 그러나 江右는 옛 加耶의 故土로서 隱遜의 氣質이 있어 左道의 好宦의 氣質과 대조된다. 李重煥은 擇里志에서

左道에는 벼슬한 집이 많고 右道에는 富者가 많으며 간간이 千年이나 된 마을이 있다.²⁾

고 말하였다. 慶尚道는 自古로 東國의 鄒魯之鄉이요, 士之冀北이었다. 그 중에서도 左道는 右道에 比하여 道學의 盛상은 한발이 앞섰다. 李重煥은

禮安은 退溪 李滉의 고향이다. 安東은 西厓 柳成龍의 고향이다. 고을 사람들이 이 두분이 살던 곳에 각각 사당을 지어 제사지낸다. 이로 인하여 서로 인근한 이 다윗 고을에 士大夫가 가장 많으니 모두 退溪와 西厓의 門生들의 子孫들이다. 의리를 밝히고 道學을 중히 여겨 비록 외딴 마을 처잔한 동리라도 문득 글 읽는 소리가 들리며, 해진 옷을 입고 형아리 창문을 단 집에 살아도 또한 道德과 性命을 말한다.³⁾

1) 李瀼, 星湖僿說, 天地門白頭正幹에 退溪生於大小白之下 爲東方之儒宗 其流深涵濃郁 揖遜退溪 文彩彰映 有洙泗之風焉 南冥生於 頭流之下 爲東方氣節之最 其流苦心力行 樂義輕生 利不能屈 害不能移 有特立之操焉 此嶺南上下道之有別也

2) 李重煥, 『擇里志』 「八道總論慶尚道」條

3) 上揭書

고 평했다. 이것은 左道에 있어서 巨儒 退溪의 教化를 말한다. 경상좌도의 教化와 같이 경상우도도 退溪에 어깨를 겨누는 巨儒 南冥이 있어 그의 가르침을 받아 大成한 儒士에 星州에 東岡 金宇顥, 寒岡 鄭述, 陝川에 來庵 鄭仁弘, 高靈에 松庵 金沔, 山淸에 德溪 吳健, 晉州에 守愚堂 崔永慶들이 南冥의 教化를 펴 경상우도 또한 道學이 閭巷에 널리 퍼져 禮義忠信을 알게 되고 실천해 나갔다.

南冥의 學을 이은 경상우도는 曹植의 首弟子 鄭仁弘의 威名이 南道를 휩쓸어 過激急進의인 來庵에 많은 儒士가 와서 受學하여 鄭仁弘의 學風이 널리 퍼져 慶尙左道와는 判異한 儒學風을 形成했다.

巨儒 南冥 曹植이 敬義의 學으로 教育하니 學風이 크게 펼쳐 右道 各 고을에 南冥의 門徒가 없는 데가 없으며 이들 儒學者들에 의하여 性理學이 크게 右道의 方方面面에 펼쳐 舉世가 大義明分 孝悌忠信 敬義의 風調로 뒤덮게 되었다. 南冥이 妻家 곳인 金海 神魚山下 炭洞에 山海亭이란 精舍를 짓고 學問에 精進하니 향후 18個星霜을 이곳에서 보낸다.⁴⁾ 그의 한창 때인 30代와 40代를 이곳에서 生活했다. 이 때 그의 學德과 教化는 遠近이 翕然하여 全國에서 紳비가 구름같이 모여 들었다. 平生 知己之友였던 大谷 成運을 비롯하여 黃江 李希顔, 松溪 申季誠, 淸香堂 李源, 警齋 郭珣등의 一世의 名流 高士들이 山海亭으로 찾아 들어 南冥과 相師友이 交를 맺고 道義를 講磨하였다. 그는 山林學派의 領袖였지만 隱遯棄世하여 吟風弄月이나 하던 現實逃避의 懦弱한 腐儒俗物이 아니었다. 그는 憂國愛民의 經綸을 가슴안고 國家의 將來를 걱정하고 未久에 닥칠 國難에 대비하여 國難을 匡救할 人材를 養成하고 教育하는 것을 자기의 사명감으로 삼았다.

南冥은 金海 山海亭의 生活을 청산하고 陝川 三嘉 兎洞으로 옮겨와서 雷龍亭과 雞伏堂을 짓고 여기서 學問의 연구와 學問의 教授에 專念했다.⁵⁾ 18年間의 山海亭 生活에서 南冥의 學問의 기반과 性命의 修養이 이루어졌고, 山林學派로서의 方向도 확고하게 다져졌었다. 그런 까닭에 雷龍亭 雞伏堂 時節엔 南冥의 學問 道德이 嶺南右道를 聳動하여 笈을 負하고 많은 紳비들이 그의 門下에 모여 들었다. 그는 國家 經綸이 혼으려지고 나라가 부패하고 內憂外患이 꼬리를 물고 일어나 將次 닥칠 土崩之患을 크게 걱정하고 悲憤慷慨하여 장차 國家의 棟樑之材 干城之將을 양성하고 장차 國難을 救濟할 忠烈之士를 길우기 위하여 國防의 緊要를 강조하고 國防의 方策과 作戰術 兵참까지 가르쳤다. 이 시기에 그의 門下에서 薰陶를 받은 儒士로는 來庵 鄭仁弘, 德溪 吳健, 寒岡 鄭述, 松庵 金沔, 大奚軒 趙宗道, 竹閣 李光友, 覺齋 河沆, 篁園 朴齊仁, 松堂 李光坤, 寧無成 河應圖, 藍溪 朴希茂, 喚醒齋 河洛, 玉洞 文益成, 玉溪 盧禎 등이었다.

4) 南冥別集卷一年譜

5) 上揭書

南冥은 晩年에 智異山 天王峯 밑에 德山으로 옮겨가 山紫水麗한 이곳에 山天齋를 짓고 여기서 老儒學者의 生涯를 마무리한다. 山天齋에 크게 敬義 두글자를 써 붙이고 修德과 講學으로 餘生을 조용히 보냈다.⁶⁾ 이것은 南冥이 항상 몸에 차고 있던 칼의 銘에 「內明者敬 外斷者義」의 眞諦다. 벌써 南冥의 學과 人格 德望은 圓熟의 경지에 다다라 그의 學德은 단연 斯文의 北斗였다. 그의 名聲은 全國에 떨쳐 山天齋엔 全國의 선비들이 다투어 모여들었다. 智異山下 山天齋는 완전히 嶺南에서 左道の 陶山과 并稱되는 儒敎 私學의 本山이었다. 先生의 門에는 綺羅星처럼 찬란한 星座들이 受學하여 가르침을 받고 各各 資質 學問을 개발했다. 이때 이곳에서 工夫한 名儒들도 藥圃 鄭琢, 雲岡 趙瑗, 桐谷 李晁, 東岡 金宇頤, 松庵 李魯, 守愚堂 崔永慶, 省庵 金孝元, 寒岡 鄭述, 月潭 崔況, 忘憂堂 郭再祐, 浮查 成汝信, 新庵 李俊民, 藍溪 林希茂, 潮溪 柳宗智, 雪壑 李大期, 淸江 李濟臣, 竹牖 吳淦, 孤潭 李純仁, 玉溪 盧禎, 大笑軒 趙宗道, 來庵 鄭仁弘 등 이루 헤아릴 수 없다.

이들은 南冥에게서 그의 高潔한 人格 卓絶한 節義 剛義한 氣慨 深奧한 學問을 배워 大學者로 義兵將으로 政治家로 大成하였다. 山天齋에서 鄭寒岡 吳德漢 崔守愚 金東岡 鄭來庵等 一世의 鴻儒碩學이 老師 南冥과 學問을 論하는 光景은 朝鮮儒學史上의 一大壯觀이었다.

이에 南冥에 敎育을 받고 南冥의 思想에 感化되고 南冥을 宗師로 바르는 南冥門徒들에 의하여 소위 南冥學派 즉 江右學派가 慶尙道에 形成되었다. 星州, 陝川, 居昌, 山淸, 咸陽, 晉州, 宜寧, 昌原, 河東, 高靈등 慶尙右道 江右 地方에는 南冥 門徒에 의하여 南冥을 宗師로 바르는 持敬居義 反躬體驗 實踐躬行을 旗幟로한 江右 學派와 江右學風이 形成되었다.

이와같이 江右學風의 淵源은 曹植에 있으나, 曹植의 學은 慶尙右道라는 風土에서 釀成되었다. 慶尙右道の 儒學 土壤은 巨儒 南冥 學派를 形成시킬 만큼 豐潤했다. 成宗朝에 士林派의 領袖요 嶺南學派의 宗師인 佔俾齋 金宗直이 密陽에서 태어났으며 咸陽에 고을 살어 文風을 진작시켰으며 그의 門徒인 寒暄堂 金宏弼이 玄風에서 一蠹 鄭汝昌이 咸陽에서 濯纓 金駟孫이 淸道에 나서 儒學을 크게 일으키고 金宏弼의 學統을 계승한 慕齊 金安國 그리고 名儒 晦齋 李彥迪이 慶尙道 觀察使로 와서 이 地方의 敎化에 힘쓰니 慶尙右道는 儒學이 널리 普及되게 되었다. 晦齋는 南冥을 朝廷에 천거했으며 서로 書信을 교환했다. 晦齋가 만나자 함에 晦齋가 官職을 버리고 故鄕에 돌아가면 그 때 安康의 고향막에 방문하겠다고 사양했다. 이와 같은 儒敎와 文教의 土壤 위에서 南冥學派가 形成될 수 있었다.

南冥學이 이루어지는데 영향을 준 從遊의 儒者를 一瞥하면 다음과 같다.

晦齋 李彥迪, 退溪 李滉, 三足堂 金大有, 聰松 成守琛, 趙遙堂 朴河淡, 成遇, 東阜

6) 上揭書

李浚慶, 松溪 申季誠, 一齋 李恒, 葛川 林蕙, 圭庵 宋麟壽, 清香堂 李源, 警齋 郭珣, 黃江 李希顔, 東洲 成悌元, 七峰 金希參, 游軒 丁煥, 龜岩 李楨, 蘇齋 盧守愼, 士亭 李之齒, 玉溪 盧禎, 金禧年, 溪堂 崔興霖, 崔福男, 琴軒 李長坤, 瓶齋 朴河澄, 無心翁 成日休, 茅菴 朴希參, 湖陰 文敬忠, 西圃 鄭雲, 安分堂 權遼, 李公亮, 慕庵 姜瑀, 月塢 尹奎, 姜應斗, 安樂堂 李希顔 李霖, 拙齋 盧祥, 辛崙, 南湖 成日章, 松潭 鄭白水, 陽村 金秀文, 竹厓 任說, 林塘 鄭惟吉, 草堂 許曄, 臨淵齋 裴三益, 六庵 姜應奎, 敬齋 李世柱, 孝廉齋 李擎柱

이 諸名儒 碩學 達士들은 혹은 神交로 혹은 金蘭之契를 맺어 相師友하여 學問을 論하고 人生과 社會를 論하여 南冥이 學者로 成長하는데 陰으로 陽으로 影響을 준 이들이다.

Ⅲ. 南冥의 生涯와 學問

江右學派의 淵源이요, 宗師는 南冥 曹植이다. 本貫은 昌寧, 字는 捷仲, 號는 南冥이다. 高祖는 曹殷이니 中郎將이요, 高祖母는 郭氏로 縣監 郭興仁의 딸이다. 曾祖 曹安習은 成均生員이요, 曾祖母는 南平文氏 學諭 文可容의 딸이다. 祖 曹永은 不仕했으며 祖母는 趙氏로 監察 趙瓚의 딸이다. 父는 曹彥亨이니 이 때에 비로소 顯達했다. 彥亨은 庭試 壯元으로 立身하여 持平 宗簿寺正 承文院判校 成均館司成 通訓大夫요, 母는 仁川 李氏로 忠順衛 李菊의 딸이다. 李夫人의 母는 通川 崔氏로 漢城 少尹 崔敬孫의 딸이요, 外祖父는 有名한 左議政 崔潤德이다.⁷⁾ 南冥의 家系는 父 以上은 보잘것없다. 曾祖 曹安習이 漢陽府 慶尚道 陝川 三嘉 板峴으로 入鄕했다. 그의 父는 壯元한 後才요 淸職을 두루 격는 淸宦이요, 성품이 剛直했다. 그의 父親의 影響은 적지 않게 南冥에 影響했다. 南冥은 陝川 三嘉縣 兎洞 外家 李菊의 집에서 태어났다. 貧寒한 南冥家는 饒富한 外家의 德을 많이 보며 자랐다. 그리고 母夫人은 훌륭한 賢夫人이라 南冥에 많은 感化를 주었다. 南冥은 幼年期와 青年期 25세까지 漢陽府 文科에 壯元하여 官職에 나아간 父親을 따라 京師 漢陽에서 成長했고, 父親에게서 少年時節에 글을 배웠다. 7세에 글을 배움에 天才夙成하여 一覽輒記했다. 感受性이 예민한 少年시절에 동무로는 一齋 李恒과 東臯 李浚慶 李潤慶 兄弟와 親密했다. 나이로는 그들 보다 南冥이 두세 살 아래였다. 그리고 南冥이 一生의 知己之友로 사귄 大谷 成運을 이때 만났다. 成運과는 집을 이웃하여 살았다. 南冥이 20세에 이들 두 知己가 만나 서로 靈犀가 相通했다. 大谷은 南冥보다 四年之長이었으나 朝夕으로 만나 學問을 서로 論하였고 밤이되면 한 이불에 같이 자기도 했다. 大谷으로 인하여 또한 사람의 名上인 聽松

7) 『南冥先生文集別集卷之一』 「世系」, 曹植, 「先考通訓大夫承文院判校墓碣銘」(『南冥先生文集卷二』), 鄭仁弘, 南冥先生行狀 南冥曹先生神道碑銘, 《來庵集》卷之十二 卷之十三)

成守琛과 交游하게 되었다. 大谷과 聽松은 四寸兄弟간이었다. 聽松은 南冥보다는 八年之長이었다. 大谷의 從兄인 聽松에 南冥은 兄事之했다. 國初 第一의 名閥이던 廣州 李氏 東臯 兄弟 昌寧 成氏⁸⁾ 大谷 從兄弟와의 交遊는 京師 第一의 甲族 士大夫家の 俊逸과 사귄 수 있어 그들로 부터 兩班 士大夫家の 高邁한 氣風과 教養을 體得하여 南冥의 人格 完成에 큰 影響을 주었다. 그리고 이 時期에 그는 性理學 뿐 아니라 天文 地理 老莊 兵家등 諸子百家的 學을 涉獵했다. 그리고 名門巨族이란 華閥 出身으로서도 仕宦에 뜻을 버리고 隱逸하여 性理學과 心性의 養命에 專念하던 成門 兩隱에서 影響 받아 이후 南冥이 山林處士로 一生을 一貫한 精神的인 支柱—그이 人生觀의 定立이 이 때 이루어졌다 하겠다.

南冥은 左氏春秋와 唐宋八大家인 柳宗元의 文章을 酷愛하여 古文을 崇尚하여 古文으로 文章을 지음에 그 文章力은 當世에 超邁했다. 19세에 山寺에서 周易을 工夫하고 四書三經에 曉通하였다. 20세엔 生員 進士 兩 司馬試에 合格했다. 그러나 南冥은 白岳山에서 隱逸의 高士 成守琛에게 깊은 感명을 받아 科擧를 포기하고 世間事를 등지고 오직 學問을 위하여 山林으로 들어가고 만다. 南冥은 19세에 成宗琛의 師傅요 當世 儒學界의 泰斗이던 宗師 靜庵 趙光祖가 賜死했다는 충격적인 訃音을 듣고 그는 宦海風波를 단념하게 된다. 25세 시엔 山寺에 들어가 性理大全을 탐독하다가 許魯齋가 달한

志伊尹之志 學顏子之學 出則有爲 處則有守 大丈夫當如此 出無所爲 處無所守 則所志所學將何爲⁹⁾

라는 대목에 이르러서는 활짝 깨달아 慨然이 聖人の 學을 배우고자 결심했다. 그리하여 內面的인 聖人の 學을 지향하고 枝葉的인 것은 떨쳐버렸다. 오로지 六經과 四書와 程明道 程伊川 周濂溪 張橫渠 朱子의 性理學書를 주야로 精讀 研究하여 反躬實踐에 힘쓰고 사물을 應接하면서 몸소 窮究하여 表裏를 함께 修養하였다. 그리하여 敬과 義를 아울러 가지면 아무리 세도 다하지 않는다고 내 집에 이 두 글자가 있음이 마치 하늘에 해와 같이 있는것 같다. 이는 萬古에 걸쳐 바뀌지 않을 것이며, 聖賢의 眞가치 만가지 달음도 그 歸着하는 요점은 여기서 벗어나지 않는다고 道破했다. 研窮性理

8) 成倪『楠齋叢話』卷之二에 當今門閥之盛廣州李氏爲最 其次莫如我成氏 廣李自通村以後漸大 通村之子 參議之直 參議之子三 曰長孫舍人 曰仁孫右議政 曰禮孫觀察使 舍人之子克圭今爲判決事 議政有五子 曰克培領議政廣陵府院君 曰克堪刑曹判書廣城君 曰克增廣川君 曰克墩吏曹判書廣原君 曰克均知中樞 皆階一品 四人以切封君 廣城雖早卒 其子世佐 今廣陽君 文子文孫羅列崇班 相繼不絕 我成氏自昌寧府院君以後漸大 府院君有三子 長石璘左政丞昌寧府院君 次石璿留守 次我曾祖禮曹判書公也 政丞之子發道左參贊 留守之子達生判中樞 概爲觀察使 曾祖三子 長則我祖知中樞 次柳右參贊 次叔 僉知中樞 我考兄弟三人 考居長知中樞 次則右議政昌城府院君 次則刑曹參判 我兄弟三 伯氏爲參贊 仲氏爲正言 季則不穀 昌城之子參議僕以後不振 參判之子三人 長似同知中樞 以後兵曹判書 次健判曹判書 不穀亦禮曹判書 昆弟三人一時三曹判書古今罕有也.

9) 南冥先生文集別集卷一年譜

居敬集義 反躬踐實¹⁰⁾ 이것이 南冥學의 要諦로서 이學이 이 때에 정립됐다. 그는 손수 孔子 顏子 程子 朱子등 四聖賢의 畫像을 그려 평풍으로 만들어 모셔 놓고 매일 새벽에 예배들었다. 이것이 救道者 南冥의 숭고한 信仰이었다. 南冥이 26세 때에는 父親의 喪을 당했다. 그의 父親은 外職인 濟州牧使에 전직되었으나 身病으로 인하여 赴任치 못하자 抗命으로 물려 削奪官職되었다. 이에 그는 父親의 억울함을 상소하여 復權받았으며 서울을 떠나게 되어 故鄉인 三嘉 先塋下에 장사지내고 廬墓를 살았다. 이로써 南冥은 落鄉하게 되었다. 5년후 그는 富裕한 妻家 곳인 金海로 옮겨 山海亭을 지어 여기서 當世의 高士들과 道義의 交를 맺어 學問에 전념했다. 그는 前後 18年間을 이 山海亭에서 修德 講學으로 보냈다. 이때 成大谷運 李清喬堂源 申松溪季誠 李黃江希顏 鄭棲庵之麟 鄭海村復顯 李陶丘濟臣 權源塘文任 盧立齋欽 郭警齋珣 李清江濟臣 金三足堂大有 朴逍遙堂河淡 등이 山海亭에 와서 交遊 혹은 來學한 當世의 名流들이었다. 南冥은 四十八세 되는 해에 陝川 三嘉의 兎洞으로 옮겨 鷄伏堂 雷龍亭을 짓고 옮겼다. 여기서 그는 12년간의 세월을 연구와 敎育으로 보내며 圓熟한 學德이 무르익고 있었다. 先生이 三嘉 兎洞으로 옮기는 時期는 선생의 나이 48세 때였다. 이 때 그에게는 典牲署主簿라는 官職이 수여되었으나 이를 사절했다. 다시 丹城縣監에 除授되었으나 격렬하고 과격한 上疏를 올려 사절했다. 이 때 그의 名聲이 朝廷에 알려져 草野의 賢良을 발탁하려고 한 것이다.

그의 名望이 全國에 떨쳐 鷄伏堂 雷龍亭에는 全國의 名士들이 雲集하여 門徒之盛이古今에 드물게 보는 盛觀을 이루고 있었다. 이 곳에 찾아와 배우거나 禮訪한 人士로는 李竹岡光友 李松堂光坤 文玉洞益成 吳德溪健 盧玉溪禎 姜介庵翼 金七峰希參 朴松庵齊賢 朴篁岩齊仁 河喚醒齋洛 河覺齋沆 趙大笑軒宗道 李新庵俊民 李茅村灝 李日新堂天慶 金松庵沔 등의 名儒들이 先生의 門에 모여들어 學問을 傳受받았다.

南冥은 61세의 老境에 마지막 隱居地로서 晉州 德山 絲綸洞 智異山 天王峰 아래 水石 奇絶處에 山天齋를 이룩하여 여기서 老哲人의 晩年을 보냈다. 이 때 南冥은 退溪와 并稱되는 嶺南의 巨擘으로 全國의 儒林에서 泰山北斗로 숭앙되었으며 이 偉大한 巨儒의 學德을 思慕하여 全國에서 名儒碩學이 모여들었다. 鄭藥圃琢 趙雲岡瑗 李桐谷晁 李雪齋大期 李龜岩禎 金東岡宇顒 李松岩魯 崔守愚永慶 金省庵孝元 鄭寒岡述 崔月潭況 郭忘憂堂再祐 成浮查汝信 등이 찾아와서 受學했다. 南冥은 天下의 俊才들이 그의 門下에 와서 受學할 때 그는 그 弟子들의 才能에 따라 指導 啓發시켜 國家와 社會의 棟樑之材로 敎育해 내었다. 이런 면에서 南冥은 朝鮮 敎育史上에 巨人으로 영원히 빛나리라고 생각한다. 南冥은 弟子가 물기를 「단일 선생께서 세상에 나가셨다면 大事業을 이룩하실 수 있었겠읍니까」고 물음에 대답하여

10) 玄相允, 『朝鮮儒學史』「第八節 曹植條」, 金忠烈「生涯를 通해서 본 南冥의 爲人」『大東文化研究第17輯』所收, 成均館大學校 大東文化研究院.

내 일찍이 그런 才와 德을 갖지 못했다. 어찌 일을 맡아 주어나갈수 있었겠느냐. 만일 옛 德을 높이고 後輩를 가르쳐 격려해서 賢才를 선발하여 각기 그 才能을 國家에 공헌케 하고 앉아서 이를 기대하는 것이라던 아마 나도 할 수 있다.¹¹⁾

이 얼마나 謙虛하며 後生을 啓發 教育하여 有爲한 人才로 育成시키는 偉대한 教育者의 달이나. 과연 先生이 心血을 기울여 薰陶한 弟子들이 宣祖 光海年間에 朝鮮의 儒學 政治界를 주름잡는 偉人 達上를 배출했다. 뿐만 아니라 民族의 受難期인 壬辰敎國戰爭에서 祖國守護를 위하여 쫓겨난 義兵將에 南冥문화 출신이 많았다.

南冥先生은 當代 山林의 宗師로 그의 高邁한 人格과 偉대한 學德은 萬人의 崇仰을 받았다. 朴希參은 그의 두 아들 朴齊賢 朴齊仁을 南冥의 門으로 受學하기 위하여 보내면서 老境의 이 偉대한 教育者요 哲學者인 南冥의 風貌를 다음과 같이 표현했다.

오사이 내 智異山 밑에 南冥先生을 찾아 보았었는데 비로소 우리의 道가 여기에 있음을 깨달았노라. 先生의 德스런 용모는 天地의 精氣를 타고난 것이었고, 그의 學問은 敬義로서 으뜸을 삼아 一動一靜이 直內而方外하지 않음이 없었다. 今世에 이름있는 碩學들은 다 그의 門에 모여 道를 닦고 學問을 연구함에 참으로 몸이 베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볼때 예 孔子의 育英의 즐거움을 南冥翁에서 볼 수 있었노라.¹²⁾

고 술회했다. 여기서 우리는 圓熟한 老境에서 天下 英才를 얻어 育英하는 君子의 樂과 偉대한 老哲人의 高潔한 경지를 眼前에 방불케한다.

南冥은 51세에 宗簿寺主簿로 除受되었으나 사양하고 55세에 丹城縣監에 제수되었으나 이를 사양하는 古今未聞의 과격한 辭職疏로 朝野를 驚動시켰다. 그는 國家紀綱의 解弛와 王朝의 부패와 붕괴의 위기를 신랄하게 찢었다. 宮中의 大妃는 일개의 과부에 지나지 않고 殿下(王)는 유치한 고아에 지나지 않는다, 政權을 개혁하여 國王이 직접 다스려야 한다는 破天荒의 極言을 서슴치 않았다. 王은 大怒하여 不敬君上之罪로 극형에 처하라고 엄명했다. 그러나 經筵官史官들의 극력만류로 무사했다.

南冥은 66세 되는 가을에 尙瑞院判官에 除授되자 上京하여 詣闕 肅拜하고 思政殿에서 明宗을 謁見했다. 明宗은 南冥에게 政治의 道를 물었다. 이에 대해 南冥은 대답하기를

신이 생각컨대 古今의 治亂에 관한 사실은 歷史 冊에 적혀 있습니다. 구테어 臣이 말씀드릴 필요도 없습니다. 신이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임금과 신하의 사이가 서로 情義로 믿음이 있어 조금도 틈이 없어야만이 일을 할 수 있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옛날의 帝王은 臣下를 朋友처럼 대우하여 서로 맞의하여 治道를 강구함에 스스럼없고 허심탄회 했습니다. 지금 生民의 생활이 극히 곤란하여 離散함이 마치 목이 터진 물과 같으니 불난 집

11) 或問使先生得大事業否 曰吾未嘗有才德 豈得當了事 若尊舊德獎後輩 推拔多少賢才 使之各効其能 坐觀其成功 吾或庶幾焉(『南冥先生文集別集卷一』「年譜鄭寒岡來謁條」)

12) 『德川師友淵源錄卷之二』「朴茅菴條」에 公與先生從遊曰久 篤信無疑 命送二子齊賢齊仁 受業于山天齋 作書以訓之 曰近日餘往見南冥先生于南嶽之下 始覺吾道在是也 蓋先生之德容稟得天地之間氣 而其學以敬義爲元符 一動一靜 無非直內而方外 今世之名碩 盡萃其門 道腴經馥 益粹面背古君子育英之樂 於翁見之矣

은 구하듯이 서둘러야 할 것입니다.¹³⁾

고 했다. 또 明宗은 남명에게 學問의 方法을 물으매 대답하길,

人主之學 出治之源 而學貴於心得 得於心 可以窮天下之理 可以應事物之變 而總攬萬機 自無事矣 其要只在敬而已¹⁴⁾

다고 했다. 君王의 學은 政治의 根源이므로 學問의 要諦를 마음 속으로 얻어 마음에 간직해야 한다. 그래야만 天下의 이치를 窮究할 수 있고, 가이 사태가 급변하는 경세에 대응할 수 있어 萬機를 總攬할 수 있어 무사 태평하게 될 것이다. 그와 같은 要諦는 오직 敬에 居하는 것 뿐입니다고 간곡히 進言했다.

南冥은 國王을 謝恩肅拜하고 應召에 直侍하고는 그 익일 결연히 서울을 하직하고 江湖로 돌아 오고야 말았다. 그가 서울에 간것은 官職을 맡고져 한것이 아니었다. 布衣에 私騎로 갔다. 驛馬를 타지 않았다. 南冥을 부를 때 明宗은 敎旨에서 「내가 불민하여 어진이를 흠모하는 정성이 결했던가보오 전에 階制를 무시하여 職位를 주었지만 出仕하지 않으니 내 참으로 부끄럽기 그지없소. 서늘한 때를 기다려 驛馬를 타고 올라오시오.」¹⁵⁾라고 간곡히 불렀던 것이다. 明宗이 승하하시고 宣祖가 즉위하여 敎書로 特召했으나 南冥은 거듭 거듭 사양하고 國家를 걱정하는 「救急二字」로 奔命에 대신하는 上疏를 올리고 時弊十數條를 올렸다. 先生의 「胥吏亡國論」은 朝鮮王朝에 있어서 큰 病弊의 正鵠을 찌른 것이다.

南冥은 宣祖 5年(1572) 2月 72세로 이 세상을 떠났다. 宣祖大王은 訃音을 듣고 先生의 學德을 기려 禮曹佐郎 全璫을 보내어 賜賻 賜祭하고 通政大夫 司諫院大司諫을 贈했다.

臨終에 즈음하여 弟子 金宇顥이 先生의 死後 稱號에 대하여 물으니 先生은 處士로 불려달라고 했다. 이는 나의 平生의 뜻이니 官爵을 부르는 것은 나를 버리는 것이라고 했다.¹⁶⁾ 이 말에서 南冥의 山林學派의 領袖로서의 面貌가 躍如하다 하겠다. 退溪가 돌아간지 一年만에 南冥이 가고 말았다. 儒林의 슬픔은 形容할 수 없었다.

南冥과 退溪는 百年神交¹⁷⁾ 千里神交古人所尚¹⁸⁾이라는 文字 表現으로서 書信으로 神交를 맺었다. 南冥은 退溪를 「平生景仰有同星斗于天 曠世難逢長似卷中人」¹⁹⁾이라고 景慕했다. 先生 71세에 退溪의 訃音을 듣자 南冥은 매우 슬피하면서 눈물을 닦으며 「같은 해에 나서 같은 길을 걸으면서 서로 만나보지 못했으니 어찌 운명이 아니겠느냐

13) 『南冥先生文集別集卷之一』 「年譜 四十五年丙寅 先生六十六歲條」

14) 上揭書

15) 『朝鮮王朝實錄 明宗實錄』 明宗 21年 7月條

16) 『南冥先生文集』 卷五 「言行總錄」

17) 『南冥先生文集』 卷之二 書 「與退溪書」에 百年神交直今達面 從今住世應無幾矣

18) 與曹健仲書, 退溪 先生全書卷 第10

19) 『南冥先生文集』 卷之二 書 「答退溪書」

이 사람이 죽었다 하니 나 또한 멀지 않겠구나」²⁰⁾ 하고 탄식했다. 그도 바로 一年 뒤에 죽었던 것이다. 이 두 巨儒는 洛東江의 右左에 갈라져 서로 사모했으면서도 이 兩巨儒는 끝내 만나 보지 못하고 가고 말았다. 南冥은 山林處士로서 朝士로 있던 名儒 退溪에 편지를 보내 儒學者의 타락 폐습을 시정해 주기를 간곡히 권유했다.

요즈음에 보고 듣건데 學者들이 손으로는 灑掃하는 節度도 모르면서 입으로는 天理를 떠들고 있으니 이는 스승과 어른된 자가 야단을 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 같은 사람은 궁벽한 山野에 처하여 찾아오는 이가 드물지만 선생같은 사람은 서울에 계시고 또 우리러 보는 이도 많을것이니 이들을 규제해야 하지 않겠습니까.²¹⁾

고 儒學界의 타락을 개탄했다. 穩健雅端한 退溪는 깊은 충격을 받았다. 韓國儒學史上空前의 論爭이던 退溪 奇高峰問의 8年間에 걸친 四七理氣論을 欺世盜名이라 비판한데 對하여 매우 큰 자극을 받았다.

요사이 南冥으로부터 온 이의 말에 의하면 湖南 奇斯文이 일찍기 滉과 더불어 四端七情을 論한 書札을 주고 받은 것을 南冥은 극히 옳지 않다고 하며, 심지어는 欺世盜名이라고 지목 했습니다. 이말은 참으로 藥石이며, 이 이름은 매우 두려운 것이다.(退溪先生全書 卷第28 書 答李剛而)

라고 退溪는 龜岩에 준 答書에서 쓰고 있다. 退溪는 鄭惟一에 보낸 편지에서

마침 南冥 崔健仲의 편지를 받았는데 이르기를 「요사이 보니까 學者란이들이 손으로는 灑掃의 節도 모르면서 입으로는 天理를 論하고 盜名을 꾀하여 남을 속이다가 되려 남에게 中傷당하는 바가되고 그 害가 남에게까지 미치게하니 어찌 先生長老가 詰責하지 않았는 때문이라고 하겠소」고 하였는데… 우리가 마음 속으로 學問을 願하여 처음 공부를 시작했을 때는 어찌 盜名欺人한 생각을 가졌었겠소 그러나 立志함이 篤實지 못하고 遵道함이 도중에 서 중단하여 왕왕 입으로 天理를 말할 때말에만 홀려 行動을 수습하지 못하는 일이 있으니 盜名한다는 비난을 면하기가 어렵다. 때문에 南冥의 말은 참으로 우리들에게 藥石이 된다고 하겠다. 이제부터 더욱 분발하여 反躬踐實함으로써 입으로는 天理之本을 論하고 날로 研窮體驗之功을 닦으면 知行이 兩進하고 言行이 相觀해서 聖門에 罪를 짓지 아니하면 高世之士의 伍지람을 면할것이로다.²²⁾

고 했다. 南冥은 儒學의 宗師 退溪에 斯文을 바로 잡아 주기를 기대했다. 여기서 우리는 南冥의 學者 精神을 알 수 있다. 南冥의 儒者 風格을 諸賢의 評으로서 代하여 살펴보면 成大谷은

學成而醇 德積而崇

이라 하고 吳德溪는

卓立海東 蓋世精神 明透鬼神 勇奪行陣 橫渠壯志 見義奮迅 泰山秋氣 俯壓偷風 立定脚跟

20) 『南冥先生文集別集』 卷一「年譜」 五年辛未 先生七十一歲條

21) 前揭「與退溪書」

22) 退溪先生全書 卷第35 書 答鄭子中.

堅節刻意 誠省主敬 儲制以義 駕風轡遠 跬步遠指…百代大儒 三世徵士

타 하고, 鄭寒岡은 말하기를

稟天地純剛之德 鍾河嶽南嶽之精 才高一世氣蓋千古 智足以冠天下之英 勇足以衛三軍之師
有泰山壁立之像 有岷峨高翔之雄 隱居求志 閉戶積學 忠信以爲本 敦義以爲主

타 하고, 栗谷은 말하기를

曹植選世獨立 志行高潔 眞一代之逸民 第其論者 則於字間無實見 所上章疏 亦非經濟之策 雖
使行于世 未必其能成治道也 然終究節 壁立千古 如植者無幾云²³⁾

이다고 讚揚했다. 宣慰가 鄭述를 불러보시고 李況과 曹植의 學問에 대하여 물음에 渥
德厚而學純 學者可易而進入 植超然自得特立獨行 學者難以爲安也라고 했다.

南冥은 항상 金鈴을 차고 스스로 警省했으니 이를 惺惺子라 부렀으며 밤에 졸음이
오면 흔들어 喚醒했고 또한 칼을 턱에 고이고 어어만지며 警昏했다. 이 칼에 劒銘을
지어 「內明者敬 外斷者義」라 했다. 山天齋의 窓壁間에 敬義二字를 大書하여 「이 두字
는 日月과 恰似하야 그 中의 어느 하나로 廢치 못할것이라」했다. 先生은 惺惺子를 晩
年에 高弟子요 外孫婿인 金字顒에 傳之하고 劒은 首弟子 鄭仁弘에 傳之했다. 이 두
門人이 先生의 衣鉢傳授의 首弟子였다.

南冥의 葬禮式에서 弟子들의 序列을 보면 吳德溪가 門人의 首로 서고 그 다음이 崔
守愚堂이 섰다. 이것은 吳建이 學德도 뛰어나지만 나이가 압도적으로 많은데 기인 한
다. 德溪는 鄭仁弘 보다 14년 鄭述보다 22年 金字顒보다 19년이 長이었으며 崔永慶은
德溪보다 8年 아래였다. 그러니 崔永慶이 吳德溪 다음에 섰던 것이다. 德川師友淵源
錄에서 首門에 吳建을 놓고 있다.

南冥 葬禮式에서 門生들의 序列을 살펴보면

南冥先生을 장사자냄에 모여든 선비가 數百人이었는데 吳德溪가 吏曹正郎으로 門人의 首
로 東院에 서고 崔徵士가 다음에 섰다. 題主(神主에 글을 쓰는것)를 할려고 함에 鄭寒岡
金東岡 鄭來庵 등이 題主를 하는 이는 마땅이 素服을 입어야한다고 주장하고 그 중에도 寒
岡은 가장 이를 力說했다. 그러나 나머지 선비들은 모두 마땅이 國制에 따라 吉服은 입어
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하여 양측 주장으로 오랫동안 결정짓지 못하자 弊衣敝笠으로 西
偏에 섰던 公(李濟臣)이 손을 번쩍 들고 자리를 지나 나오며 하는 말이 「吳正郎은 先生의
高弟요 位望도 가변지 않고 朝廷 大事까지도 參決하는 사람이니 마땅이 한마디 결정을 내
리셔야 하지 않겠습니까」하니 德溪는 신중한 사람이라 사양하고 감히 결정을 못내리고 결
양함에 公(李濟臣)이 正色하야 大聲으로 말하기를 「이것이 足下가 銓曹의 자리를 얻을 수
있었던 까닭이로다」고 하니 德溪가 빙그레 우셨다. 이를 보고 守愚堂이 말하기를 이 늙은
이가 매우 강직하다」고 했다.²⁴⁾

라는 좋은 史料가 있다. 葬禮式날 南冥의 首弟子로 吳德溪繼이 추대되었고 崔守愚堂

23) 李珥 石潭日記

24) 南冥先生集卷之六 師友錄 李教授條

永慶이 序列에서 그 다음이었던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무어니 해도 南冥의 首門은 來庵 鄭仁弘을 推舉하는 것이 어느 모로든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Ⅶ. 德山 首門 鄭仁弘

南冥 門下 四十八家가 다 쟁쟁한 名儒들이었지만 그중에서도 南冥의 寵愛를 받은 弟子는 鄭仁弘 金宇頤 吳建 鄭述 崔永慶등이 있으며, 그 중에서 鄭仁弘은 先生의 극진한 총애와 촉망을 받았고 敬義劔을 傳授한 首弟子다. 그는 南冥의 首弟子 답게 南冥先生詩集序文 南冥曹先生行狀 南冥曹先生神道碑銘 祭南冥曹先生文을 지은 高弟子다.

鄭仁弘의 字는 德遠이요 號는 來庵이며 本貫은 瑞山이다. 公의 高祖 鄭成儉은 文科에 及第하여 務安縣監을 살았고 陝川에 入鄕했다. 曾祖 鄭傳는 文科에 登第하여 三嘉縣監을 지낸 分으로 估畢齋 金宗直의 門人이었다. 祖는 鄭彥佑요 父는 鄭倫으로 오직 學問에 힘쓰고 벼슬 길에 나가지 않았다. 母는 晉陽 姜氏로 忠順衛 姜訥의 딸이다. 來庵은 三兄弟 中 長男으로 1355年 中宗 30年 陝川 加耶山 精氣를 받아 象王山 麓의 南簑村에서 태어났다. 어려서 부터 天才絶倫하야 다섯살에 벌써 弔離文을 지어 사람들을 驚嘆케했다. 열한살에 海印寺에서 讀書三昧의 境地에 나아가 九經을 涉獵함에 一覽輒記했다. 來庵은 當代 山林學派의 宗師인 南冥 曹植을 雷龍亭 鵝伏堂으로 찾아가 그의 門下에서 薰陶를 받았다. 그는 恩師 南冥을 지극히 존경하고 思慕했다. 그는 스승의 豪健博大한 氣慨와 居敬持義의 學과 孤高卓邁한 出處를 배우고 계승했다. 그의 스승을 본받아 二十三세에 司馬試에合格했으나²⁵⁾ 科業을 버리고 性理學과 兵學 天文 地理등 諸子百家를 섭렵하여 無不通達했다. 그는 恩師의 사랑을 각별히 받았다. 南冥은 來庵의 志操와 才能이 非凡함을 사랑하여 持敬工夫를 가르쳤고 그도 스승의 가르침을 받들어 刻苦勉勵하여 大成했다. 南冥은 항상 차고 喚醒하던 방울인 惺惺子를 金宇頤에 傳授하고 항상 차고 있던 敬義劔을 鄭仁弘에 傳授하였다. 南冥은 이를 주면서 傳心한다고 했다. 이에 감격한 來庵은 항상 꿇어 앉아 칼을 턱밑에 고이고 정신을 가다듬기를 죽을 때까지 하루같이 하였다.²⁶⁾ 그리하여 그 學問은 當代에 匹敵한 者 없어 獨步했다. 後日에 經筵에 나아가 春秋와 周易을 講論함에 一代의 碩學들이 그의 該博한 學問과 卓絶한 講論에 경탄하여 승복하지 않은이 없고 朝廷에서 政事를 論할時 典故는 모두 來庵에게 물었다. 그의 學識은 靑出於藍而勝於藍의 觀이 있었으

25) 宣宗大王實錄卷之 152 35年 壬寅七月條 命元曰臣與仁弘生員同年 其時暫相見 今則不得相接矣
26) 宣祖大王修正實錄卷之七 六年癸酉五月朔庚辰條

鄭仁弘陝川人也 童時從曹植學 植奇其志操異凡兒 誨以持敬 自是堅苦用功晨夜不解 植常佩鈴喚醒 往劔警昏 末年以鈴與金宇頤 以劔與仁弘曰 以此傳心 仁弘以劔拄頤下繫跼 終身如一 然其質性剛 屢自用 與人言語 小有逆於己意 輒忿恚求勝 造言謀害 陰巧不測 雖至親篤交 忽若仇讐 所養愈厚 所發尤暴其讀書稽古精博過於植 尤長於辨難攻擊之文 人知其非而畏其強 莫能抗也 李珣虛心好善 望風傾倒 遂與相善 不知其爲壬人也 由此名動朝廷

니 그의 스승은 능가했고 辨難攻擊하는 文에 뛰어나 當代에 그의 銳鋒을 當할자 없었
다 한다.²⁷⁾ 來庵은 學問이 精博하고 孝悌에 돈독하고 人格이 높이 빼어나 그의 德望
은 朝廷에 알려져 宣祖 6年 1573 卓行之士로서 遺逸로 吏曹에서 薦拔되었다. 南冥 門人
의 鄭仁弘 花潭 門人의 李之菡 退溪 門人의 趙穆 李一齋 門人의 金千鎰 亦南冥門人의
崔永慶 五賢士가 六品職에 除授되니²⁸⁾ 때에 來庵 39세였다. 이어 1575 黃澗縣監에 발
탁되어 善政하고 이에 山林學派의 重望으로 一國이 칭송하여 臺諫에 薦거됨에 1581年
鄭琢으로 大司憲 李珥로 大司諫 成渾 鄭仁弘으로 掌令을 살았다. 이에 朝野가 기뻐하
였다. 司憲府掌令(正四品)으로 上京하는 來庵의 風采를 사람들은 모두 바라보았다.
鄭仁弘의 不正 彈劾과 郭清紀綱은 가위 秋霜烈日과 같았다. 鄭仁弘의 令名威望은 一
國을 聳動했다. 栗谷은 來庵의 德望을 欽慕하여 知己之友로 傾倒 相善했다. 나이는
栗谷보다 來庵이 한살 위였다. 來庵은 果斷性이 있고 강한 추진력이 있었는데 대하여
栗谷은 穩健鄭重하였다. 그리하여 來庵은 栗谷을 評하여「叔獻는 剛毅하게 일을 해낼
爲人이 못된다」고 그의 過柔를 걱정했다. 安敏學으로 부터 이 말을 들은 栗谷은 웃으
며「내가 德遠의 韋가 되고 德遠이 나의 弦이 되어 나와 德遠이 하나로 합치면 무슨
일인들 못하겠는가」²⁹⁾고 했다. 과연 栗谷이 大司憲 來庵이 掌令으로 있어 剛柔가 調
和를 이루어 一時綱紀이 肅然히 匡正되었다. 實錄에는 來庵을 讚美하여

史臣曰鄭仁弘南冥曹植之高弟也 自少讀書林下 頗以氣節自許 嶺南士子多推尊之 稱曰來庵先
生 及其承不世之命 起草野而來 君上虛席以待 朝野拭目以望 爲仁弘者 所宜首格君心之非 繼
陳時務之急 與一二士類之尤者 同寅協心 論議可否 朝論之是非 用捨之得失 次第正教 務存保
命和平之道 則清流依重 輿望允愜 或不失朝家期待之意矣³⁰⁾

라고 했다. 그가 얼마나 朝野의 願望을 받고 있었으며 盡忠奉公 善處했던가를 알만하
다. 이리하여 來庵의 威名은 一世를 振動했다. 朝廷에는 鄭仁弘 崔永慶 鄭琢 金孝元
吳健 金宇顥 鄭述 등 南冥의 門徒들이 翺翔하여 江右學派는 萬丈의 氣焰을 吐했다. 이
것은 모두 南冥先生의 後光이었다. 南冥이 죽자 朝廷에서는 遺逸을 起用함에 科擧 出
身과 差別待遇를 철폐하여 尊士의 禮를 진작시켜 士林을 興隆케 하자는 論議가 일어
遺逸을 拔擢하여 臺諫은 勿論 卿相에까지도 補함이 可하게 되는 轉機를 만들었다. 國
王은 大臣에 논의케 하니 領相 李鐸이 아뢰길

帝王의 사람 뽑은 오직 人材를 얻는데 있사옵니다. 어찌 출신 여부를 따질것이 겠사옵니

27) 上揭書

28) 上揭書

29) 栗谷全書卷30 經筵日記 3에 鄭仁弘在憲府 以風整物 百僚振肅 至於市中商賈 皆不敢以禁物見
於外 有一武夫 自鄆入京謂人曰 鄭仁弘掌令 其狀如何其威稜遠播外方 如兵水使守令輩 莫下恐懼
改慎 眞丈夫也 李珥聞之笑曰 德遠作憲官人多忌嫉 而武夫乃敢稱譽 渠是丈夫也……仁弘疑珥過
柔 謂安敏學曰 叔獻非剛毅敏放輩底人 敏學告珥 珥笑曰 我當爲德遠之韋 德遠當我之弦 我與德
遠合一 則豈不做事乎

30) 宣宗大王實錄卷 154 35年 乙亥九月條

가? 질질로 헛것 배워서 몸소 행하고 조용하게 스스로 지켜서 이를 단계를 생각지 않는자 라면 비록 公槐의 지위에 두어도 可한 것입니다. 어찌 處辭 비술 뿐이었습니까. 군내에 가서 오로지 과거로서 사람을 쓰니 才德있는 선비가 많이 沈滯하여 擧揚하지 못합니다. 南冥(南冥)같은 이는 한 시대의 逍遙인데 除授한것이 아함은 관직에 불과하여 나뉘어 한 나뉘 단로 耽露해 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이런 때문에 어진 사당이 오지 않습니다. 이서부터는 臺官에는 科擧出身 아닌 사람도 들어 써서 한편으로 祖宗의 規例를 되라고 한 새로운 사람 쓰는 길은 넓혔다면 어찌 聖明의 지각에 맞지 않겠습니까.³¹⁾

했다. 이후로는 이로 인하여 山林의 逍遙에서 拔擢된 人士가 臺諫과 卿相에까지 오른 이가 나오게 되었다. 鄭仁弘을 위시하여 후세에는 宋時烈 尹拯 許穆 李玄逸등이 重用 되는 契機가 되었다.

來庵은 栗谷과 함께 東西 分黨의 정조를 걱정하고 이를 막으려고 애쓰이었던만 본 의 아니게 그도 黨爭에 휘말리게 되는 운명의 길을 걷게 되었다. 그는 그의 同門이요 五賢士로 同時에 발탁된 守愚堂 崔永慶이 鄭汝立의 謀叛에 억울하게 連坐되어 鄭澈의 鞫問으로 인하여 獄死하자 敢然히 儒林을 규합하여 鄭澈成渾을 규탄하는 과격한 상소를 연이어 올렸다. 이 때 來庵과 守愚堂은 관직을 버리고 落鄕하여 山林에 있었다. 그리하여 來庵은 西人의 敵이 되었다. 1581年 司憲府掌令으로 승진한후 西人인 鄭澈 尹斗壽를 탄핵하다가 解職되어 落鄕됐던 것이다.

來庵의 生涯에 피를 붉게하는 民族의 大受難이 닥쳐왔다. 史上 空前絶後の 大戰亂이 터졌던 것이다. 1592年(壬辰年) 10여만의 倭軍이 수백척의 海軍 軍艦을 타고 疾風 怒濤처럼 쳐들어 왔다. 鄭仁弘은 同門인 前 佐郎 金沔, 前 郡守 郭起, 前 佐郎 朴愷, 儒生 郭趨과 來庵의 弟子인 河渾 曹應仁, 文景虎, 權養, 朴而章, 文弘道등과 더불어 抗日 義兵을 이르켰다. 松菴 金沔은 宣祖가 西쪽으로 蒙塵하였다는 소문은 듣고 즉시 달려가서 行在所에 問安드리고자 했으나, 鄭仁弘이 함께 義兵을 이르키자하여 고령에서 郭趨 文緯 尹景男 朴廷璠 柳伸龍 朴愷을 참모로 의병을 일으켰다. 來庵은 義兵將이 되고 前 僉節制使 孫仁甲으로 中衛將(副將)을 삼고 金晬가 三嘉 草溪 星州 高靈의 군사를 鄭仁弘께 配屬시켰다. 來庵의 威望은 본시 고을의 선비와 백성들이 敬畏하고 복종했기 때문에 그의 義兵將으로서 깃발을 높이들면 遠近의 선비와 민중이 그의 깃발 아래 모여들어 鄭仁弘의 義兵은 精兵 數百 槍軍 數千의 大部隊를 형성할 수 있었다.³²⁾ 鄭仁弘은 突擊 先鋒長 孫仁甲으로 하여금 군사를 훈련하고 군비를 갖추어 애국심에 불타는 義兵을 이끌고 達城郡 茂溪에 주둔한 村上景親의 軍을 攻擊하여 數百名을 쳐 죽이고 다시 2次로 鄭仁弘은 그 副將 金俊民으로 하여금 이를 공격하여 많은 전과를

31) 南冥先生文集附錄 編年

32) 宣宗大王實錄卷之 27 25年 壬辰六月條에 本道陷敗之餘 四散崩潰者 非但逃軍卒爲然 大小人民擧入 山林 鳥棲獸伏 雖反覆開諭 而無人應募 自近曰高靈居前佐郎金沔 陝川居前掌令鄭仁弘 與其同志玄風前郡守郭起 前佐郎朴愷 幼學權養等 召集鄉兵 從者頗衆 仁弘則精兵幾百 槍軍近數千 (李肯翹 燃藜室記述 卷之十六 참조.)

올리고 敵을 星州로 격퇴시켰다. 이때 그의 同門인 郭再祐는 宜寧에서 義兵을 이끄러 敵을 물리치니 南冥 門人 三義兵將이 솔밭처럼 江右에 陣치고 協同作戰으로 倭軍을 격파했다. 다시 草溪縣 馬津전투가 벌어져 洛東江에 약탈한 財寶를 滿載하고 내려가는 倭의 大船團을 추격타가 수렁에 빠져 孫仁甲은 愛馬와 함께 殉節하고 말았다. 이에 義兵將 鄭仁弘은 巨濟縣令인 金俊民을 副將에 임명 孫公이 남겨놓은 군사를 지휘케 했다.

이때 慶尚道觀察使 金晳는 密陽 靈山草溪等 적이 없는 곳만 가려 도망치기 바빴는데 江右學派의 義兵將인 金沔은 居昌에 주둔하면서 知禮 金山 方面의 敵을 방어하고 義兵將 鄭仁弘은 星州에 주둔하면서 高靈 陝川 方面의 적을 막았으며, 義兵將 郭再祐는 宜寧에 주둔하여 南江 洛東의 요충을 방어하고 있었다.

壬辰年 8月 21日 敵 1萬이 웅거한 星州城 공격전에 義兵將 鄭仁弘은 義兵將 金沔 義兵將 任啓英과 合同作戰으로 이를 치기로 합의하고 慶尚右道觀察使 金誠一은 都體察使 鄭澈에 요청하여 精兵 5,000의 응원군을 받아 25,000의 大軍으로 공격했으나 敵의 응원군의 래습으로 후퇴하고 말았다. 義兵將 鄭仁弘은 金沔 金俊民과 合同作戰으로 9月 第2次 星州城 공방전을 전개했다. 鄭仁弘은 陝川郡守 裴楔을 불러 伏兵을 응원군이 올 길에 매복케 했으나 「내가 어찌 저런 書生들의 節制를 받아서 中路에 伏兵을 배치하고 침부름을 한단말인가 참 아니웁다」하고 명령을 듣지 않았다. 이에 倭의 大軍이 원군으로 와서 북병이 없음을 알자 일대 공격을 가해 오매 城中의 倭軍도 一大 공격을 해와 이에 我軍은 괴멸되어 도망치게 되었다.

鄭仁弘은 홀로 泰然작약 散兵에 叱咤했다. 그의 別將 孫承義는 單騎로 長劔을 휘둘러 10餘名の 적병을 죽이고 壯烈하게 전사했다. 義兵將 金俊民의 英雄의인 활약은 유명했다. 鄭仁弘은 金誠一에 報告도없이 星州戰을 敢行했고 報告로 시원치 않자 鄭仁弘을 책망했다. 鄭仁弘은 호랑이였다. 그의 厲聲一喝에 山川조목이 떨었다. 그의 門生 부하들은 말하기를 「우리 先生은 一國에 重名을 잃어지고 士林의 首袖가 됨으로 무릇 하고 안하고 하는 일은 모두 儀表로 삼거늘 다투서 敢히 옳고 그름을 다스릴 수 있으랴」하고 「巡察(金誠一) 또한 어진 사람으로서 어찌하여 우리 스승을 이토록 迫害하는고」하고 한탄했다 한다.³³⁾

癸巳年 體察使 李元翼의 奏請으로 鄭仁弘에 嶺南義兵大將을 拜했으나 그는 이를 받지 않았다.

壬辰亂後 陝川 鄉里 林下에서 學問연구와 교육에 힘쓰는 그에 거듭 벼슬로 올랐으나 병을 핑계로 出仕치 않았다. 그의 門下에는 그를 推仰하는 儒學者가 雲集했다. 宣祖는 來庵의 學德을 欽慕하여 司憲府 大司憲을 除授하고 간곡히 불렀다.³⁴⁾ 이에 來庵

33) 李炯錫, 壬辰戰亂史上卷 p. 519.

34) 宣宗大王實錄卷之 146 35年壬寅二月條에 上親自撰之以下曰 久聞高義十年之前 蓋嘗一見 自是之後 卿歸故山 歲月悠悠 逮壬辰之變作 卿乃仗義之討賊 遮障一面 山林之下 爲國効死 雖在播遷之中未嘗不發嘆興懷 然猶不能召致左右 弼豫不辟 遺賢之失豫固不免……茲以卿爲司憲府大司憲以摠綱綱 夫積所以將有爲也……辭故山之烟霞 釋來相而一起 即今春日載陽 行程甚穩 乘駟斯速上來

은 上京하여 國王을 謁見하고 辭職疏를 올리고 落鄕하고 말았다.

江左 退溪의 首門인 柳成龍과 江右 南冥의 首弟子인 鄭仁弘이란 兩巨人이 政敵으로 極限對立 했었다. 壬辰亂 七年戰爭 中에 柳成龍은 執權者 首相으로서 主和派였는데 對하여 鄭仁弘은 野人으로 勤王의 義兵을 일으켜 싸운 主戰論者였다. 黨爭에서도 柳는 南人이었는데 對하여 鄭은 北人으로 代表된다. 더욱 鄭仁弘은 崔永慶의 獄事에 中立을 지켜 救해주지 않았던 柳成龍의 태도에 不滿이 누적되었었다.

드디어 鄭仁弘 系列의 砲門이 작열했다. 來庵의 門人 正言 文弘道는 柳成龍의 和議主張을 맹렬히 공격 宋 奸臣 秦檜에 비교했다. 이에 柳成龍은 削奪官爵되었다. 來庵의 弟子 文景虎는 崔永慶을 誣陷해 죽였다고 成渾을 공격했다. 이는 崔永慶을 죽인 西人이 牛溪의 門徒였으며, 軍務로 嶺南에 내려간 成渾의 門人 李貴가 鄭仁弘을 포함한 對한 反擊이다. 뿐만아니라 成渾은 南冥이 退溪의 學問에 비교가 안되며 배울 것도 없다고 酷評한 것을 崔永慶은 매우 분개했으며 南冥門徒들은 매우 못마땅 했었다. 宣祖는 文景虎의 上疏를 받아들이고 西人을 출적했다. 宣祖가 來庵을 大司憲으로 불러 올린 때가 바로 이 때였다. 當時 史家들의 鄭仁弘 評을 보면

史臣曰仁弘孝性出天 操履剛方 自少從師南溟先生 南溟器之曰德遠在則吾爲不死矣 仁弘亦尊信之 篤向學之專 危坐讀書 夜以續日 廉潔棘棘 與人寡合 尚義嫉邪之心 終始不撓 對人論議之際 劍鋒截然 聞人有非義之行 則雖高官大爵 鄙之如奴 疾之如讎 雖號爲名儒碩士 素所相識者 小有依阿苟之態 則絕不與語 人皆憚而病之 略不介意 薨入柩府 百僚屏氣 屢宰州縣 邑人敬畏 雖居林下 慷慨憂國 臨亂倡義 不尸其功 其節操風裁 有人所難及處 與柳成龍大不合 二家門人互相排軋 南北之黨 至此愈深 加以仁弘尊南溟而夷退溪 議貶之辭 形於文字中 以此爲士類所詆 (宣祖大王實錄卷之 211 40年 丁未 5月 丁丑)

라 했다. 이와같이 來庵은 剛直한 선비였고 그의 性品은 秋霜熱日 같았다. 이 傳大한 鄭仁弘이 壬辰亂 救國의 名相 柳成龍과는 얼마나 相剋이 있는가는 前記「與柳成龍大不合 二家門人互相排軋」라는 文字에서 알만 하거니와

史臣曰成龍廣尚道安東豐山縣人 天資聰穎氣象端雅 早歲從遊退溪先生門下 矜東以禮 見者器之……與鄭仁弘議不合 仁弘每以公孫弘斥之 成龍亦惡仁弘之隘僻 士論携貳 相攻擊如火水 (宣祖大王實錄卷之 211 40年 丁未五月乙亥)

라는 記事에서 짐작할만하다.

左道與右道之爭 則其論主於柳成龍而言論倫 右道之高靈以下 則主於仁弘而言論暴³⁵⁾

라는 記事와 같이 嶺南左右道는 柳鄭으로 갈라졌다.

이 때 來庵은 儒林으로 부터 破門 當하는 一次 波動을 일으켰다. 그의 恩師를 존경한 나머지 退溪가 그의 恩師를 비평한것을 不快하게 여겨 南冥文集跋南冥集說에 退溪

35) 光海君日記卷 26, 2年 庚戌 3月丁酉條 (鼎足山本)

를 비판한것이 크게 문제되어 成均館 儒生들이 들고 일어나 八道 儒林에 通文을 보내어 70세의 來庵을 極烈히 糾彈聲討했다.³⁶⁾ 이는 南人 西人의 子弟들이 退溪를 존경한 나머지 鄭仁弘을 공격하여 은영중에 南冥에 對하여 공격한 것이었다. 弟子로서 恩師를 변호한 來庵의 論理는 當然한 것이었으나 敢히 儒生이 大儒 南冥을 공격한것은 좋지 못한 風潮로 慨歎할 일이었고 時論도 그러했다. 南冥 衣鉢傳授의 高弟³⁷⁾인 鄭仁弘의 反擊은 人之常情이었다. 그러나 嶺南 左右道에서 兩門에 出入하여 受學交游하던 嶺南 儒林은 그렇지 않아도 점차 不便한 관계로 발전하고 있었던 터이라 이로 인하여 江右學派와 江左學派는 反目을 갖어오게 되었다.

더욱 큰 致命的인 波紋을 일으킨 것은 左贊成 鄭仁弘이 文廟에 配享된 先正臣 晦齋와 退溪를 文廟 從祀에서 黜斥하자는 晦退黜疏享를 올렸는 사건이었다. 鄭仁弘은 退溪가 南冥의 短點을 지적한 것에 격분하여 過激한 上疏를 올렸다.

臣이 깊어서 曹植을 섬겼는데 倅發하여준 恩惠를 중하게 입어서 섬기는데 君師父一體의 의리가 있었읍니다. 또 成運과는 鴻金을 주고 서로 許與하여서 친을 후배로 보지 않았으니 分義기 비록 曹植과는 輕重이 있으나 스승과 제자라고 할만하였읍니다. 臣이 일찍 故 贊成 李滉이 曹植은 誣陷하고 헐뜯어 말한것을 보았읍니다. 一은 남에 거만하며 세상을 경멸한다(傲物輕世), 一은 높고 거만한 선비로서 中庸의 道를 기대하기 어렵다(高亢之士難要以中道), 一은 老子 莊子의 學을 尊崇했다는 것입니다. 成運은 淸隱으로 偏小한 一節의 사람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臣은 마음에 항상 분하고 답답하여 한 번 변명하려고 생각한지 여러 해 되었읍니다. 云云³⁸⁾

라고 長文의 上疏를 올려 恩師 曹植을 높이고 자기 恩師를 비판한 退溪를 痛罵했다. 曹植과 成運은 같은 時代에 태어나서 뜻이 같고 道가 같아 泰山喬嶽같은 氣節과 精金美玉같은 資質로 學問에 독실한 工夫를 하였으니 구구한 文字의 學問이나 한 李滉과 위가 능히 헐뜯을 바가 아니라고 했다. 그리고 趨時 附勢 嗜利 無恥하여 始終 權奸之門客이 되어 淸議가 버린 바 있는 李楨 黃俊良 따위와 道學으로 許與하고 聖賢으로 期待하여 사되어 「有頭出頭沒 老於名利場中者 一朝可望以道學工程聖賢事業者乎」라고 辛辣하게 비난 공격했다.³⁹⁾ 李楨 黃俊良을 罵倒한 것은 李楨이 退溪와 편지를 주고 받으면서 退溪와 같이 南冥을 評한것이 來庵의 비위를 건드렸는데 있다. 뿐만아니라 所 謂 河宗岳妻淫婦事件으로 인하여 南冥 退溪 李楨 鄭仁弘 사이에 誤解와 忿怒가 발생했다. 李楨이 南冥의 親友 李希顔의 閨門之事를 觀察使 朴啓賢에 告하여 다스림에 南

36) 宣宗大王實錄卷之 189, 38年 乙巳 7月

37) 上揭書에 仁弘從遊最久 得衣鉢之傳者也

38) 光海君日記卷 39, 3年 辛亥 3月條 4月條. 李肯翹, 燃藜室記述卷之 19 光海君 鄭仁弘削儒籍條에 臣少事曹植 重彼開發之恩 事有如一之義 且與成運開心相與 不視爲後輩 分義雖有輕重 即謂之師生也 臣嘗見故贊成李滉誣毀曹植 一則曰傲物輕世 一則曰高亢之士難要以中道 一則曰老莊爲崇...라고, 庵은 그의 恩師를 批判한 退溪와 그의 學統인 晦齋를 신랄하게 공격하여 文廟에서 쫓아 내기를 강권하게 주장했다.

39) 上揭書

冥은 李楨 連姻 河宗岳妻의 淫行을 은폐기 위하여 친구의 閨門之事를 무고했다고 격노하여 이 사실을 監司에 말하여 淫婦사건을 嚴히 다스리는 결과를 가져와 이 淫訟사건을 둘러싸고 南冥은 龜岩과 絶交하는 사태로 발전했다. 龜岩이 淫婦의 뇌물을 받았으며 벼슬을 위해 權門 小人輩에 아첨했으니 이는 聖賢의 글을 읽고 敬義를論하는 자의 소행으로 볼 수 없다고 痛罵했다. 이에 龜岩은 退溪와 書信을 주고 받으며 龜岩이 退溪에 호소하여 이 사건의 해결 방안을 묻기로 했다. 이에 退溪는 이 絶交의不幸을 슬퍼하지도 말것이며 더욱 난처하게 될 것이니 구차하게 변명도 말라했다.⁴⁰⁾ 退溪는 이 사건에 言及하여

曹亭亭物表 歸歸霞外 天下萬物無足以嬰其心者 彼鄉里一婦失行與否 是何等塵穢事 乃自貶損高節 與人爭是非 費盡心機 至於積年 而猶不知止 誠所未曉⁴¹⁾

라고 世態에 조연한 高士가 이 하찮은 淫婦의 사건에 너무 지나치게 過敏한 反應을 보여 스스로 高節을 손상시키고 남과 다투어 心機를 다 허비하여 몇년을 끌어도 끝일 줄을 모르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했다.

이로 인하여 來庵은 龜岩 退溪를共に 유감으로 생각하여 罵倒하게 된 것이다. 黃俊良은 그가 退溪에 편지를 보내어 南冥이 義理가 透澈치 못한것을 論함에 退溪는 答書에서 「이 같은 사람들은 老莊에 젖어 우리 儒學에는 의례 깊지 못한데 무엇이 투철치 못하다고 이상한가」(此等人多是老莊爲崇 於吾學例不深邃何恠其未透也)⁴²⁾고 한데 對한 來庵의 분노를 나타낸 것이다.

이 來庵의 峻烈 過激한 上疏는 退溪를 숭배하는 南人 西人들의 맹렬한 攻擊에 조우했다. 成均館 太學生 李榮 등 500여명이 궐기하여 晦齋 退溪를 옹호하고 鄭仁弘을 靑衿錄(儒籍)에서 削名시키는 儒敎의 破門(excommunication)을 當했다. 都承旨 金時獻이 上疏하여 鄭仁弘을 규탄하고 鄭仁弘의 門人 持平 朴汝樑이 鄭仁弘을 辯護함에 國王은 단호히 鄭仁弘을 靑衿錄에서 削除하는 데 主動한 太學生을 覈出하여 禁錮하고 儒籍에서 삭제하라고 命令했다. 이에 李恒福이 상소하여 太學生 처벌이 不可함을 상소했다. 이에 成均館 太學生들이 同盟休學하는 스트라이크인 捲堂을 단행했다. 事態는 점점 惡化하여 空館투쟁으로 돌입하여 大學을 완전히 비우고 退校해 버렸다. 이에 京畿 嶺南湖西 江源 開城 平安道の 儒生들이 궐기하여 兩賢을 옹호하고 鄭仁弘을 규탄했다. 그러나 慶尙右道 儒生들은 鄭仁弘을 옹호하고 兩賢을 공격했다.

이리하여 嶺南의 儒林은 江左의 退溪學派와 江右의 來庵學派로 兩分되었다. 鄭仁弘

40) 光海君日記卷第26, 2年 庚戌 3月 丁酉條 (鼎足山本)

41) 李瀾·星湖僿說, 天地門淫訟

42) 李瀾·星湖僿說·天地門·退溪南冥條에 退溪가 黃錦溪와의 사이에 往來한 書札을 듣고 南冥 門人 金宇宏은 退溪에 편지를 보내어 嶺南左道에 退溪가 右道에 南冥이 있음은 하늘에日月이 있음과 같다 하며 南冥의 偉大性을 力說했다.

을 지지 옹호하는 儒林의 세력도 강력했다. 그 猛將은 來庵의 門徒인 文景虎, 文弘道 朴汝樸, 朴乾甲, 成鎔 등이었다. 그러나 이 論爭은 鄭仁弘이 仁祖反正이란 西人의 꾸레파로 斬刑됨으로서 江左派의 승리로 끝났다. 그리하여 新進儒生으로부터 泰山北과 처럼 존경받던 鄭仁弘도 晦退 비판으로 인한 儒林과의 싸움으로 말미암아 호되게 욕을 얻게되는 결과를 찾아왔다. 그러나 江右에서 來庵을 尊敬하고 追從하던 儒林은 科擧를 否定 포기하고 朝廷에 등을 돌리고 오랜동안 그를 추앙해 왔다.

宣祖가 病老하여 世子(光海君)에 傳位와 攝政을 시사했으나 小北의 領袖 柳永慶이 이를 반대하자 來庵은 世子를 칭송하고 柳永慶을 공격하는 上疏를 올렸다가 王位를 물려주라는 뜻을 비친 來庵에 宣祖는 서운했고 껄심했다. 막상 물려주라면 서운한 것이 君心이었다. 그는 74세의 老軀를 이끌고 寧邊으로 遠竄길에 올랐다. 그러나 宣祖의 急逝로 事態는 急轉直下 永昌大君을 옹호하던 柳永慶 등의 小北政權은 물러나고 流配길에서 來庵은 풀려났다. 臨海君의 逆獄에서는 李恒福 李元翼 등이 全恩說을 주장한 데 대하여 宗社의 安寧을 위하여 秋霜같이 割恩論을 主張하여 依法 處斷을 주장했다. 그러나 永昌大君의 逆獄 蒸殺 사건에는 全恩論을 주장하여 永昌大君救伸疏를 간곡히 거듭 올려 護逆으로 물리기 까지했다. 그의 弟子 忘憂堂 郭再祐와 桐溪 鄭蘊도 割恩論에 反對하였다. 그리고 仁穆大妃 廢黜幽閉의 廢母에도 反對했다. 光海의 妻甥인 柳希奮이 「左議政 鄭仁弘은 一生을 林下에서 讀書한 사람으로 識見이 高明하고 志慮가 堅確하여 聖代를 만나 융숭한 배우와 명방이 있으며 재상의 신분으로 있으니 꼭 그말을 들어 大變을 처리하여 禍의혹을 늘루도록 하라」하여 來庵을 붙으매 公은 王을 直對하여 「子無廢母之理 君臣子母名義出於天而不可易 子之於母名分素定固不可廢也」라고 反對했던 것이다. 光海王의 실망은 형언할 수 없었다. 이에 앞서 來庵은 山林에서 光海主의 간곡한 諭旨를 받았다.

一세의 泰山喬嶽과 같은 重望을 지고 있는 이가 아니고는 中流의 砥柱처럼 물결을 막아낼 수 없다고 여겨 卿으로 하여금 大司憲을 임명하는 것이요, 卿은 壁立千仞의 氣節이 있어 일기거 激濁揚清하여 世道를 挽回한 바 있소. 지금 이 어디에 卿이 아니고 누가 이 일을 해내겠소.⁴³⁾

라고 간곡히 불렀으나 병을 빙자하여 나가지 않았고 뒤이어 左贊成 右相 左相에 大拜되었고 瑞寧對院君에 封해졌다. 그러나 나아가지 않았다. 81세에 几杖을 下賜받고 上京하여 國王께 直對하여 廢母를 極力 反對하고 국왕의 간곡한 만류를 뿌리치고 加耶山으로 돌아오고야 말았다. 이후 先生은 익을한 시명을 덮어 쓰고 마지막 罪人으로 저역 올라간 때까지 9년 동안 다시는 上京치 않았다. 83세에 領相에 大拜되자 3次나 辭職疏를 간곡히 올린것을 마지막으로 세상을 가질 때까지 6년간 一切 上疏도 하지 않았다.

43) 來庵先生家狀

그러나 李爾瞻 一派의 稅政과 光海王의 廢母殺弟란 綱常大悖論事件은 儒敎統治理念 王朝에 있어 서革命을 不可避하게 만들었다. 黨爭이 熾烈하던 政局에서 大北政權에 밀려났던 西人들에 革命의 大義明分(口實)을 주어 1623年 소위 仁祖 反正이란 宮廷革命이 일어나 成渾 李珥 門徒인 西人이 執權하게 되었다. 이에 當代 執權者 李爾瞻一黨은 모두 斬誅되었고 이 禍는 當代 山林의 領袖요 政國의 大老요 著龜이던 林下相公來庵은 89세의 高齡으로 京師에 押送되어 廢母의 罪名으로 다스렸다. 來庵先生은 마지막 供招에서

나는 멀리 떨어져 있어 일찍기 國政에 干與한 바 없노라. 그리고 廢母之論은 古史와 名分을 들어 절대 不可함을 밝혔노라. 내 스승에게 學問을 배워 君臣父子의 大義가 무엇인지를 알았노라. 아! 슬프도다. 丘園에 물러가 누워있든지 이제글 20년 어지러운 세상사를 들고 알려고도 하지 않았노라. 90살 모진 목숨이 아직도 죽지않고 살아서 마침내 廢母의 罪名을 얻었나니 이제 한번 죽음에 돌아 보아 슬플것은 없으나 장차 地下에서 무슨 讞목으로 先王은 뵈겠소. 그것이 두려웁도다.

고 堂堂히 陳述했다. 그러나 西人 執政者들은 이 政國의 元老에 모든罪를 다 덮어 씌웠다. 門人인 諫臣 鄭蘊이 古來에 耄荒之年에 極刑은 不當하다는 간절한 上疏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斬刑되고 家産은 籍沒되고 말았다. 이 偉대한 江右學派의 領袖요 大政治家 鄭仁弘은 冤死했다. 李爾瞻 一黨의 大北政權에 의하여 公의 重望이 利用當했던 것이다.

光海의 失政에 대한 責任은 公에 있는것이 아니다. 그리고 光海가 失政만 한것이 아니다. 偉대한 政治로 壬辰의 傷處를 회복시켰고 外交에 偉대한 貢獻을 한 治世로 再評價되어야 한다. 그리고 廢母殺弟의 首魁로 보는 一般의 誤解는 마땅히 是正되어야 한다. 政治에 있어서 人倫과 名分 自體도 國家와 民族의 安寧 秩序와 保衛에 先行할 수는 없다. 國家의 莫重한 安危는 편협한 儒敎史觀의 고부한 感傷論에 맡길 수는 없는 것이다. 來庵은 偉대한 實踐的 儒學者요 教育者요 愛國者요 政治家였다. 丹齋 申采浩는 來庵을 朝鮮 第一의 政治家로 推舉했으며 鄭仁弘傳을 지을려는 腹稿를 갖고 있었으나 獄死로 빛을 보지 못했다.⁴⁴⁾ 來庵은 高邁한 南冥學의 眞髓를 體得 계승한 碩學이었다. 그는 退溪學派의 思辨的 四七理氣論의 지나친 理論的인 面을 비판하고 實踐躬行 經世濟國의 拯出思想과 當代 儒學의 病弊와 王國의 制度的 矛盾과 通弊를 改革코져한 南冥學의 精神 思想을 後世에 계승 傳授시킨 江右學派의 第一가는 驍將이었고 萬鈞의 願望을 받던 山林의 大老요 卓邁한 識見과 叡知와 能力으로 政治를 遠隔 操縱한 政界의 巨木이었다.

V. 南冥의 門徒와 人脈

1. 南冥門人

南冥의 門徒에 의하여 江右學派가 형성되어갔다. 南冥의 門徒는 太盛하여 濟濟多士

44) 申采浩, 申采浩全集 참조

했다.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鄭仁弘은 衣鉢傳授의 首門高弟이었다.

吳健 字는 子強 號는 德溪 咸陽人, 金麟厚, 李滉의 門人이기도 하다. 文科에 及第正言을 거쳐 吏曹佐郎 正郎 春秋館記事官을 겸하고 明宗實錄의 편찬에 참여했다. 南冥은 德溪를 매우 敬重했다. 可謂 南冥의 首弟子다. 南冥 葬禮式엔 門人之首였다.

鄭述 字 道可 號 寒岡 西原人. 吳健 李滉의 門人이기도 하다. 金宇顥 李珣의 추천으로 遺逸로 천거되어 叅奉에서 起身하여 工曹叅判 大司憲에 이르렀다. 性理學에 大家로 諸子百家에 通達하고 그의 心經發揮로써 可爲東方心學之祖宗이 되었다. 諡 文穆

金宇宏: 字 敬夫 號 開岩 李滉에 배우다. 文科에 及第하여 大司成 副提學 光州牧使를 지내다.

金宇顥: 字 肅夫 號는 東岡 宇宏의 弟 李滉의 門人이기도 하다. 文科及第후 官이 大司成 吏曹叅判 大司憲에 이른다. 南冥의 外孫嫡子다. 學問 文章이 뛰어났다. 南冥의 惺惺子를 傳授받은 衣鉢傳授의 愛弟子다. 世에 星州의 兩岡이라 하여 寒岡과 并稱한다. 諡 文貞

李濟臣: 字 彥遇 號 陶丘 鐵城人, 安宙의 門人 이기도 하다. 21세에 成均館 儒生이 되었으며 清河教授가 되었다. 장차 큰 변이 날것을 예견하고 과거를 보지않고 江湖에 숨어 살았다. 과연 乙巳土禍가 났다. 李芑 尹元衡의 눈에 나서 벼슬길을 단념하고 만년에 南冥門에 들어 曹植과 함께 德川洞에서 여생을 마쳤다. 詩文에 능하고 學行이 뛰어나고 강직하기로 유명했다. 晉州 鼎岡書院에 祭享하다.

鄭琢: 字 子精 號 藥圃 淸州人, 李滉門人, 文科及第 大司憲 進賀使 謝恩使로 두번이나 明에 다녀오고 吏曹叅判, 右贊成 左贊成으로 王을 壬亂에 義州로 扈從 左議政 領中樞府事 扈從功臣三等 西原府院君에 封해지고 奉朝賀에 이르렀다. 藥圃가 南冥에게 배우고 돌아갈 때 南冥은 소 한 마리를 주어 타고 가게했다. 公이 그 뜻을 알지 못함에 南冥이 말하길 「君은 辭氣가 太敏하니 遲鈍하여 멀리 이름만 같지 못하다」고 했다. 후일에 南冥이 國王으로부터 부름을 받고 上京함에 藥圃가 漢江에 까지 出迎하여 弟자의 禮를 극진히 했다. 公은 博學多識하여 諸子百家에 통달했으며 李舜臣을 敕하고 郭再祐 金德齡을 추천했다. 諡 貞簡 醴泉 道正書院에 祭享했다.

李俊民: 字는 子修 號는 新庵 南冥의 생질 全義人, 文科에 登第後 正言 修撰承旨 平安道兵馬節道使 觀察使 工曹叅判 大司憲 兵 禮 吏曹判書 左叅贊에 이르렀다. 李栗谷을 一生동안 존경했으며 詩文이 뛰어났다. 諡 孝翼 晉州 臨川 書院에 祭享

崔永慶: 字 孝元 號 守愚堂 和順人, 漢城 出身, 學門 行誼로 名望이 높았다. 遺逸로 천거되어 叅奉 主簿 都事 持平으로 임명되었으나 모두 사양했다. 校正廳郎官이 되어 經書訓解의 校正에 참여하고 곧 落鄕하여 山林에서 學問에 전념했다. 鄭汝立의 亂에 吉三峰이라 무고되어 투옥되어 政敵 西人 鄭澈의 鞠問을 받다가 獄死되었다. 후에

東人 집권으로 伸寃되었다. 南冥의 가르침을 받아 敬義로 學問의 근원을 삼고 文章에 뛰어나고 氣節로 落落高遠했다. 晉州 德泉書院에 제향되었다.

金孝元: 字 仁伯 號 省庵 本貫 善山, 李滉門人, 文科壯元 賜暇讀書 士林派의 代表로 銓郎에 任命되어 이때문에 沈義議과의 알력으로 東西 黨爭을 낳게 했다. 開城留守 永興府使에 이르렀다. 三陟의 景行書院에 제향.

金沔: 字 志海 號 松菴 本貫 高靈, 李滉門人, 寒岡과 相善했다. 專精 性理學을 연구하여 學行으로 이름났다. 遺逸로 천거되어 工曹佐郎에 임명되었으나 사퇴했다. 壬亂이 일어나자 趙宗道 郭越 文緯와 손잡고 義兵을 일으켜 大功을 세우고 義兵大將, 慶尙右道兵馬節度使가 되어 싸우다 과로로 병사했다.

趙宗道: 字는 伯由 號는 大笑軒 本 咸安 生員試에 合格 遺逸로 천거되어 察訪이 되어 陽知縣監으로 善政했다. 鄭汝立의 亂에 連坐되어 投獄되었다가 석방되고 壬亂時 咸安郡守가 되었다. 大笑軒은 壬亂이 일어나자 招諭使 金誠一을 도와 義兵을 일으켜 싸운 공로로 벼슬을 받았다. 丁酉再亂에 安陰縣監 郭越이 지키는 黃石山城에 妻子를 데리고 들어가 死守하다 郭越3父子와 함께 奮戰다가 함께 壯烈히 戰死하고 선생의 夫人 李氏는 參贊 李俊民의 딸이다. 남편 곁에 殉節했다. 經史子集에 曉通하였으며 諸諱를 즐겼다. 諡는 忠毅 咸安 德岩書院에 모셔졌다.

郭再祐: 字는 季綏 號는 忘憂堂, 文科에 及第후 은둔했다. 壬辰亂이 일어나자 私財를 털어 義兵을 일으켜 神出鬼沒의 用兵作戰術로 倭軍을 크게 무찔렀다. 倭軍은 天降紅衣將軍이라 하여 두려워했다. 戰功으로 慶尙右道助防將이 되었다. 公은 南冥의 外孫婿다. 뒤에 漢城左尹 咸鏡道觀察使로 나갔다가 세상이 어지러움을 개탄 棄官 歸鄕後 비슬산에서 은둔했다. 諡를 忠翼이라하고 賜額 禮淵書院(玄風)에 모셔졌다.

李濟臣: 字는 夢應 號는 清江 全義人, 趙昱의 門人, 文科及第 謝恩使의 從事官으로 明에 다녀오고 禮曹正郎으로 春秋館記注官을 兼하여 明宗實錄 편찬에 참여했고, 晉州牧使를 지내고 咸鏡道兵馬節度使에 임명되어 尼湯介의 亂으로 패전 流配되어 配所에서 죽었다. 漢文에 능하고 書道에 뛰어났다. 諡는 平簡, 楊根의 迷原書院 淸州의 松泉書院에 祭享되었다.

李魯: 字 汝唯 號 松庵 鐵城人, 丁煥門人, 進士試에 合格, 壬辰亂에 趙宗道와 道內에 檄文을 보내 義兵을 일으키고 召募官으로 招諭使 金誠一을 도와 義兵을 일으켰으며 李元翼 都體察使의 參與官이 되어 救國에 힘썼다. 諡 貞義 洛山書院에 配享하다.

文益成: 字 叔裁 號 玉洞 南平人, 吳德溪 奇高峰 崔守愚 柳西厓 金東岡 鄭寒岡 河覺齋와 善交하여 道義 金蘭之契를 맺어 學問에 힘쓰다. 文科에 登第하고 拔英試에 重擢되었으며 官이 司諫院獻納에 이르렀다. 周世鵬, 李滉의 門下에서 受學했다. 先生은 兄 梅竹窩 益亨 大谷 益明과 같이 山海亭으로 南冥先生을 찾아가 배웠다. 陝川 道淵書院에 祭享되었다.

林 芸：字 彥成 號 瞻慕堂，葛川 林薰의 弟 재주가 뛰어나고 學問에 힘썼으며 學行으로 이름을 떨쳤다. 遺逸도 천거되어 여러번 叅奉을 除授받았다.

玄 紳：字 景諒 號 洛川 八歲에 益瓦詩를 지어 자탄을 놀라게 했다. 李況의 門人, 進士에 합격하고 趙穆과 함께 천거되어 敎官을 除授하여 大寺洞에 머물며 門下에 生徒 數百人이 盆集했다. 道東書院에 제향되었다.

宋師顔：字는 敬叔 號는 新湖 礪山人, 中司馬 以薦授度基殿叅奉했으나 곧 버리고 佴川 新湖의 위에 살면서 學問과 孝友로 알려졌다.

柳 樸：字 大樹 完山人, 花潭門人, 벼슬길에 나가지 않고 性理學에 관심 연구했다. 南冥은 매우 敬愛했다.

姜 翼：字 仲輔 號松菴 介菴 鄭唐谷에 배운다. 庶祜 李俊白과 道義의 交를 맺고 性理學의 연구에 몰두하다. 吳德溪의 추천으로 昭格署叅奉이 되었다. 藍溪書院에 제향하다.

李光友：字 和甫 號 竹閣, 行誼와 學問으로 碩德 君子란 칭호를 받다. 崔守愚 河覺齋 등과 德川書院을 창건하다.

河 沆：字 浩源 號 覺齋, 司馬試에 합격 叅奉에 임명되으나 취임치않고 崔永慶과 交遊하여 學問연구로 생애를 보냈다. 崔永慶을 伸冤코저 했으나 안되자 終生토록 恨했다. 그의 文章은 雪中梅라 칭찬 받을 정도로 高潔했다. 진주 大覺書院에 모셔졌다.

朴濟仁：字 仲思 號 篴岳 靜默齋, 참봉 王子師傳를 사양하다. 그 뒤에 佐郎 縣監 判官을 지냈다. 道林書院에 모셨다.

李天慶：字 祥甫 號 日新堂 陝川人, 舉子業을 폐하고 林泉에서 學問으로 마쳤다. 丹城 淸谷書院에 모셔졌다.

鄭 構：字 肯甫 號 永慕庵 慶州人, 孝로 인하여 陰城縣監에 임명되으나 나아가지 않았고 山陰縣監에 임명됐다.

李 晃：字 景升 號 桐谷 星州人, 文科及第 官이 司憲府 監察에 올랐다. 뒤에 縣監 銓郎에 임명됐으나 나아가지 않았다.

具 怵：字 時中, 登文科 奉事寺 正・銓郎을 거쳤다.

李光坤：字 厚仲 號 松堂, 平安道の 壬亂後 風俗을 禮로 가르쳤다.

權文任：字 興叔 號 源塘, 登文科, 官至 檢閱 文山書院에 제향하다.

盧 欽：字 公信 號 立齋 光州人, 천거되어 察訪을 했다.

全致遠：字 士毅 號 濯溪 完山人, 壬亂에 義兵을 일으켜 동을세웠고 察訪을 베풀었다. 淸谷書院에 모셨다.

林希葵：字 彥實 號 藍溪 羅州人, 登文科, 掌令 左右承旨 여러 고은 府使를 살았다. 벼랑이 어지럽자 老親 봉양을 핑계로 故苑에 돌아왔다.

郭 超：字 泰靜 號 禮谷, 朝廷에서 學行으로 천거되어 예친 郡守를 지냈고 義兵을

일으켜 공을 세웠고 禮賓寺副正에 임명되었다.

李 琰：字 玉吾 號 雲塘，安溪 鐵城人，學行으로 유명. 叅奉에 除授되으나 나가지 않았고. 鼎岡書院에 제향되었다.

河應圖：字 元龍 號 寧無成，官이 縣監에 이르다.

朴 滌：字 景清 號 雪峰，一生을 江湖에서 學問에 힘쓰다.

權世倫：字 景彝 號 仙院，中 司馬 孝行으로 알려지고 학문에 힘쓰다.

河晉寶：字 善哉，登第 翰苑 銀臺 春坊 騎曹 霜臺 栢府를 두루 거치고 星州牧使를 역임했다.

盧 鎔：字 子協 梅窩，壬辰亂時 義兵을 일으켜 功이 있었다.

金弘微：字 昌遠 號 省克堂 商山人，登第 官至 副提學

李 瑗：字 伯玉 號 雲岡，登第至承旨

李 靜：字 汝涵 號 茅村 載寧人，壬辰亂에 義兵을 일으켜 功을 세우고 官이 牧使에 이르렀다.

成汝信：字 公實 號 浮查，어려서 부터 才操 絶倫하여 學問夙成했고 丁酉亂에는 次子 鏞으로 더불어 火旺山 郭忘憂陣에 들어가 謀劃軍事하여 救國에 挺身하고 戰後의 文風振作에 공헌했다.

柳宗智：字 明仲 號 潮溪 文化人，學行으로 叅奉을 除授했으나 나가지 않고 崔永慶과 善交하여 學問을 닦았다.

李大期：字 任重 號 雪壑 全義人，官至 刑曹正郎 壬辰亂時 義兵을 일으켜 金誠一 郭再祐와 함께 활약하다.

孫天祐：字 君弼 號 撫松，性理學을 연구하여 學行이 있었다.

陳克敬：字 景直 號 栢谷，行誼가 있었다.

河天澎：字 解叔 號 新溪，有學行

愼公弼：字 士勳 號 靜齋，官叅奉 有學行

李 瑤：字 守夫，有學行

李純仁：字 伯生 號 孤潭 全義人，登第 官至都承旨

李喜生：字 景胤，進士 有學行

吳 憫：字 毅叔 號 守吾堂，德溪 從弟

宋 寅：號 頤庵，中廟駙馬 能文善書

河 洛：字 道源 號 喚醒齋，進士에 壯元 王子師傳로 천거되다. 壬辰亂에 父子倭兵에 죽다.

都希齡：字 子壽 號 養性軒，擢殿策及第 除奉常寺奉事，與吳德溪 辭官歸鄕里

吳 湮：字 太源 號 竹圃，竹溪，高敞人，文科 登第후 忠州牧使 成均館司成 光州牧使를 사퇴 壬辰亂에 宜寧에서 義兵을 일으켜 郭再祐의 휘하에서 收兵將으로 활약 丁

江右學派의 形成과 人脈

酉再亂에 다시 功을 세우고 權慄의 천거로 通政大夫에 오르고 明將陳璘의 接伴使로 활약 僉知中樞府事, 判決事에 승진 병으로 사직 다시 慶州府尹 工曹叅議에 올랐다. 先生은 東史纂要를 編撰했다.

崔況：字 彥明 號 月潭 海州人, 李仲虎門人 登第文科 暗行御史 大司諫 大司憲 聖節使 謝恩副使로 明에 다녀오다. 吏曹判書, 光國 平難 功臣에 각각 3등, 海城君에 封해졌다. 左贊成 世子貳師에 이르다.

俞大修：字 士永

鄭復顯：字 遂初 號 梅村 瑞山人, 有學行

鄭之隣：字 隣瑞 號 棲岩

朴齊賢：字 孟思 松岳

鄭惟明：字 克允 號 嶧陽 八溪人, 進士

房應賢：字 俊夫 號 沙溪

李 郁：字 文哉 壬辰亂에 義兵將으로 晉州城에서 殉節했다.

朴 淳：字 和叔 號 思庵 忠州人, 花潭門人, 文科壯元 賜暇讀書 大提學 大司憲 右相 左相 領相에 大拜. 唐詩風을 그윽, 詩 書 文 三絶 諡 文忠

李陽元：字 伯春 號 鷺渚 南坡 全州人, 李滉門人 漢山府院君 官至領相

鄭仁奎：字 德裕 號 文庵

朴 潤：字 德夫 號 竹淵 高靈人, 孝子

李宗榮：字 希仁 號 芝峰

崔 源：字 道宗 號 鶴谷 陽川人

朴 澤：字 恭夫 號 樂樂堂

田有龍：字 見卿 號 嵩峰 竹軒潭, 壬辰亂時 郭再祐와 義兵을 거느리고 싸워 功을 세우고 監察에 除授되다.

李 昌：字 昌之 號 楸岡 星州人, 文科壯元 三陟府使 軍資監正

愼文彬：號 鋪淵, 官至上護軍 知中樞府事 壬辰亂時 義兵을 일으켜 싸우다.

姜 瑞：字 叔圭 號 梅谷

李 曇：字 曇之 號 寒泉

許彭齡：字 天老 號 晚軒

權文穎：字 明叔 號 竹亭

河魏寶：字 美哉, 有 學行

朴啓賢：字 君玉 號 灌圃, 文科登第 賜暇讀書 官至 知中樞府事 兵曹判書

權文彥：字 俊叔

裴祺壽：字 晉益 號 大堤齋, 壬辰亂에 義兵을 일으키다.

鄭白渠：字 弘澤

金融壽：字 台與 號 回溪

崔徐慶：字 淵元 號 天民堂，永慶弟 行誼로 新寧縣監에 임명되었으나 李恒福의 政
권으로 부득이 나갔다가 당일로 돌아오다，兄 永慶과 함께 獄死했다.

李長榮：官郡守，卞玉希 字 得楚 號 坪川，壬亂에 舉義 殉節

金大鳴：字 聲遠 號 白岩，魁文科 禮曹正郎으로 書狀官으로 明에 갔다，神宗 下賜
의 玉龍硯을 받다，壬辰亂時 招諭使 金誠一의 召募將으로 활약하다.

朴 愉：縣監

鄭師賢：字 希古 號 月潭

柳永詢：觀察使

權文著：字 榮叔

姜 焮：字 德輝 號 觀齋

鄭大方：字 景道 號 東溪，壬辰亂에 倡義，八公山 會盟三十一人

姜 燾：字 德章 號 頤齋，壬辰年 倡義 率健僮三十餘人하여 郭再祐의 軍中에 들어
싸우다 전사하다.

李 估：字 汝閒 號 儉溪 星山人

裴明遠：字 君晦 號 月汀，壬辰亂時 義兵을 일으켜 싸우다. 이 공으로 星州牧使 兵
馬節制使에 이른다.

朴寅亮：字 汝乾 號 萬樹堂，壬辰亂에 倡義

陳克元：字 敬汝 號 月窩，壬辰亂 倡義

朴而綯：字 汝粹，壬辰亂에 義兵을 일으켜 싸우다 戰死하다. 諡 毅愍

姜 濂：字 沿洛 號 晚松

鄭麟祥：字 仁伯 號 龜溪

河宗岳：字 君礪，進士

吳 倪：字 磐淑 號 義堂

姜 珉：字 仲圭 號 守庵

河 恒：字 子常 號 松岡

朴 悅：字 汝安 號 臨履齋

鄭仁涵：字 德渾 號 琴月軒

河 渾：字 性源 號 莽軒

權 濟：字 致遠 號 源堂

李 承：字 善述 號 晴暉堂

李賢佑：字 盡忠 號 兎川

梁弘澎，金信玉，梁應龍，金勵，崔延

靜齋 曹受天, 梅齋 盧鈍, 梅軒 崔汝哭, 汀谷 裴享道, 季圭 姜璫, 鶴鷄堂 柳德龍, 臥谷 曹以天, 月潭 鄭深, 和軒 李宗郁, 梅庵 曹湜, 敬恭齋 曹義民, 曹次石, 慕亭 曹次磨, 曹次衍 등 諸賢이다.⁴⁵⁾

2. 寒岡 鄭述門人 (南冥淵源)

張顯光, 沈之澤, 金沔, 徐恩遠, 朴惺, 康復粹, 河天彭, 柳宗智, 朴玃衢, 李潤雨, 金鉉, 崔暉, 李埰, 金大澤, 李聖, 許穆, 李厚慶, 黃宗海, 沈傑, 金致三, 文緯, 裴尚龍, 孫處訥, 郭赴, 崔恒慶, 張興孝, 林明胤, 李籟, 鄭鍾, 李天封⁴⁶⁾

3. 來庵 鄭仁弘門人 (南冥淵源)

文景虎, 權滌, 朴汝樸, 鄭慶雲, 鄭蘊, 文弘道, 姜綺, 姜潤瑞, 盧冒, 盧上尚, 朴選, 姜翼文, 曹應仁, 權慄, 韓大晃, 裴明遠, 河子順, 河子益, 金應成, 李大一, 曹挺生, 柳潤, 朴乾甲, 朴坤甲, 耶孝甲, 劉慶甲, 李宗郁, 柳寅, 朴而章, 河渾, 柳季龍, 柳活, 柳仁茂, 全八及, 尹凱, 全八顧, 李義立, 盧臆, 盧伯, 朴思齊, 吳汝穩, 柳仲胤, 柳貢吉, 鄭弘緒, 李淵, 朴文璣, 李三省, 朴尚圭, 盧亨昇, 朴以赫, 權銘, 李之華, 李安訥, 李重繼, 沈淳昌, 鄭淳, 徐迪, 李光胤, 李冲, 河景受, 郭再祺, 朴而煥, 李深, 李守而, 河性源, 朴尹信, 吳隆甫, 河大新, 河大中, 李仲發, 柳任可, 梁垣, 鄭德美, 鄭德正, 鄭玄璣, 許從善, 尹堪, 權伯珍 등이다.⁴⁷⁾

寒岡의 門에서는 右相 文正公 許穆이 나왔다. 그는 西人의 領袖 宋時烈과 對立하던 南人의 領袖로 政界를 주름잡았다. 晩年은 學問연구와 後進教育에 精進했다. 그는 圓解法으로 해설한 心學圖와 堯舜禹傳授心法圖를 지었고 理氣論에서 不分離論을 주장했고 家書에 東方一人者란 칭을 들었다.

4. 張顯光門人

寒岡門에서 張顯光은 巨儒로서 學行으로 알려져 中樞府事에 올랐다. 三田渡 韓복의 소식을 듣고 영일 立品에 은둔하여 學問으로 晩年을 보냈다. 그는 理氣說에서는 栗谷의 學說을 지지했다. 그의 門下에서는 門徒道之盛의 觀은 모였으니, 許穆, 金應祖, 全湜, 柳珍, 鄭四震, 趙任道, 盧亨弼, 申悅道, 金履長, 李祐, 鄭克俊, 張乃範, 權祐, 盧景任, 金然, 張慶遇, 李道長, 趙尚禹, 呂爾載, 金玃, 蔡榮, 朴吉應, 李民憲, 金溪, 許厚, 盧亨運, 申達道, 安應昌, 洪履, 姜大遂, 金光繼, 姜弘重, 徐强仁, 鮮于淡, 鄭四震, 李善述, 李道昌, 李廷機, 呂孝曾, 韓夢參, 李廷相, 金履樸, 張以俞, 申

45) 南冥先生 別集卷之 9 師友錄, 德川師友淵源錄, 典故大方卷 3, 儒賢淵源圖 儒賢淵源, 朴世采編述, 李世煥補編, 東儒師友錄卷之 29.

46) 上同書

47) 來庵全書 所收 門人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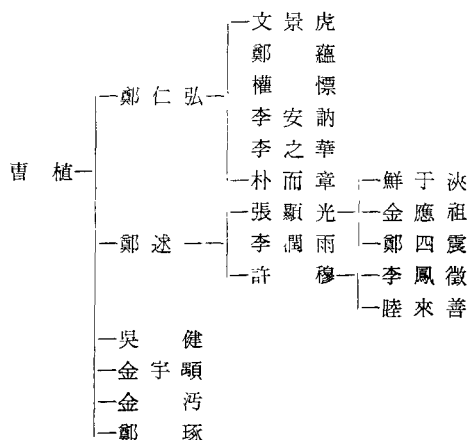
起漢, 李之英, 申楫, 金友益, 權益隣, 李惟泰, 李皖, 權對⁴⁸⁾ 등의 多士를 배출했다.

鄭仁弘의 門에서는 齊齊多士가 배출되었다. 來庵은 政界의 巨本으로 官이 人臣을 極하고 山林에서의 重望은 一國을 기울였고, 加耶山下에 89歲의 高齡으로 學問 敎育에 專修했으나 그의 名望에 全國에서 負笈하여 學者가 雲集했으나 來庵이 斬刑되자 그의 門徒들은 흩어지고 말았다. 그리고 그의 門徒들은 悲憤 慷慨하여 한결같이 官界에 나아가는 것을 수치로 여기고 山林學派로 學問과 節義를 지켜 江右學風을 지켜 왔다.

金宇頤은 南冥學의 眞髓를 領得한 高弟로 經筵에서 講論할 때 敬義存心의 要와 天理人欲의 幾를 剖析講明하여 指陳이 剴切하니 一代 請官의 第一로 꼽은 名講이었다. 이는 南冥學을 朝廷에 떨친 것이다.

鄭仁弘의 首弟子는 桐溪 鄭蘊이다. 登第하여 正言으로 있을 때 直言으로 유명했다. 恩師 來庵이 大北의 權臣이 되자 絶交를 宣言했다. 光海가 永昌大君을 죽이고 仁穆大妃를 廢할 때 極言으로 상소하여 光海의 逆鱗에 저촉되어 大逆으로 論罪할려다 大臣의 干預로 濟州에 流配되었다. 仁祖反正後 登용되어 大司諫 副提學 觀察使 吏曹叅判에 올랐다. 丙子亂에 斥和를 강력히 주장타 和議가 이루어짐에 自決할려고 칼로 배를 잘라 죽을려하여 죽었으나 瘡자가 나오고 다시 살아났다. 이후 벼슬과 세장을 하직하고 德裕山에 들어가 5년만에 죽은 强便한 崇明主義者였다. 이와같은 강경한 主戰論과 大義明分論 節義思想은 南冥—來庵—桐溪로 이어지는 江右學派의 精華라 하겠다. 이를 圖表로 作成하면 다음과 같다.

江右學派의 淵源學脈道統圖



그리고 當代 儒學界의 巨峰인 退溪, 南冥, 牛溪, 栗谷의 門生中 단연 南冥과 그의 首門인 來庵의 門人 즉 江右學派에서 義兵救國鬪爭의 猛將들이 압도적으로 배출되었

48) 典故大方

다는 것도 이 江右學派의 한 특색이요 자량이라 하겠다. 退溪學派의 柳成龍等에 의하여 和平休戰會談과 고접이 진행될 때 主張論을 전개하여 誤國의 罪로 和平派를 論한 強硬한 主戰派가 이 江右學派였다. 그리고 이 江右學派의 學風은 晉州城 大捷을 위시한 抗倭투쟁의 정신과 지주였고, 이후 전주등지의 기질을 형성하여 不義에 항거하는 晉州民權운동(民亂)의 原動力이 되었고 이와같은 破邪顯正의 정신은 3·1 운동까지 계승되었다.

5. 南冥私淑門人

南冥 以後 江右學派의 諸儒中 南冥을 私淑하고 그의 學統을 이어온 諸儒를 一瞥하면, 河弘度 字 重遠 號 謙齋, 姜大遂 字 學顏 號 寒沙, 吳汝機 字 景虛 號 敬庵, 河潛 字 晉伯 號 台溪, 崔濯 字 克修 號 竹塘, 鄭以謀 字 愼和, 成好正 字 尚夫 號 彊齋, 河憬, 河作 字 子賀 號 丹洲, 成銳 字 而和 號 惺惺齋, 成瀚永 字 渾然 號 釀和堂, 金胤翼 字 德舉 號 惺窩, 河弘達 字 致遠 號 樂窩, 金復文 字 克彬 號 遜齋, 鄭頤 字 子儀 號 秋潭, 成好晉 字 詢之 號 性窩, 孫錫胤 字 汝善 號 松村, 河溪 字 清白 號 草亭, 姜大延 字 學平 號 鏡湖, 成昌遠 字 自邇 號 不愠堂, 田榮國 字 翊甫 號 遜溪, 權克有 字 叔正 號 愚川, 成亮 字 明仲 號 牙山, 權克重 字 學固 號 謹齋, 李壕 字 上固, 李城 字 忠義, 鄭順達 字 克夫 號 遜齋, 崔灝 字 克深, 權克泰 字 上安 號 彝菴, 金確 字 泰晶 號 幼清, 鄭有祐 字 吉叔, 河達永 字 混源 號 具邇堂, 鄭耕 字 任重 號 他石齋, 李延奭 字 公輔 號 菊軒, 河澈 字 伯應 號 雪窓, 金命兼 字 景鎰 號 三緘齋, 郭世樞 字 公可 號 无爲子, 河海宇 字 夏卿, 沈自光 字 仲玉 號 松湖, 沈日三 字 省吾 號 月溪, 鄭欒 字 持世, 裴尚虎 字 季章 號 愧齋, 成治永 字 煥然, 權錠 字 子昭 號 源湖, 洪箕範 字 師聖 號 牛峰, 金尚準 字 瑀卿 號 槐亭, 崔綱 字 尚之 號 慕學齋, 河海寬 字 漢卿 號 一軒, 崔振虎 字 炳叔, 河世熙 字 俾汝, 河達漢 字 通源, 그 外에 朴櫓, 朴楣, 柳希稷, 梁應準, 河海壽, 田震, 姜微鼎, 金碩, 金世傳, 柳恒, 權混, 河景濂, 安時進, 河德望, 鄭祥履, 孫之順, 李垠, 河大明, 河大觀, 權鉞, 金聘壽, 姜振國, 金墩, 朴挺, 曹繼明, 曹晉明, 曹眞⁴⁹⁾ 桐溪 鄭蘊, 芙蓉堂 成安義, 松亭 河受一, 思潮 吳長, 凌虛 朴敏, 鵲溪 成景琛, 南溪 鄭承尹, 梧月堂 李惟誠, 沙峰 金天澤, 守肯齋 河天一, 梅月堂 李賀生, 台村 河公孝, 大暇齋 金景謹, 茅山 崔琦弼, 病隱 都敬孝, 文仲 崔興虎, 晴川 權深, 昌南 成顯, 致警 權澤, 靜齋 金雲翼, 梅軒 鄭大英, 丹巖 韓大立, 桐谷 曹慶潤, 桐山 曹慶洪, 漁隱 梁士元, 愚拙齋 朴乾甲, 默成齋 朴坤甲, 晚隱 裴自謙, 遜齋 裴益謙, 懸菴 姜翼文, 東溪 權濤, 无悶堂 朴緬, 慕松齋 河仁尚, 伊溪 申懷, 大庵 朴惺, 玉峰 鄭大淳, 茅溪 文緯, 滄洲 河澄, 石潭 李潤兩, 鳳岡 趙璩, 龍湖 朴文煥, 藤庵 裴尚龍, 朽淺 黃宗海, 礪松 趙任道, 林谷 林眞愼, 釣

49) 李漢, 星湖僿說第28卷 詩文門

隱 韓夢三, 池亭 權克行, 樂齋 柳紹春, 梅竹軒 成鎔, 而重 李樹, 東山 權克亮, 默翁 權濬, 慕省齋 成鏞, 霜岳 權溶, 琬梅堂 孫綽, 道茂 柳伊榮, 子幾 河俠, 紫圃 李瑛, 養存齋 金應奎, 伯達 河遵梅, 順俟齋 柳壽昌, 靜容 李玉立, 三松亭 都聖欽, 葵軒 都聖俞, 在川亭 成鏞, 梅竹軒 李崐, 愁愁子 崔起宗, 川齋 成鎔, 白川 姜應璫, 梅窩 崔夢龍, 隱庵 李珣, 崎翁 崔夢龜, 心遠堂 李培, 練江齋 文後, 竹圃 李見龍, 松亭 姜文弼, 汝見 柳仲龍, 梅村 文弘運 등⁵⁰⁾이 有名한 儒者였다. 그 中에서도 河弘度는 字는 重遠이요, 號는 謙齋로 宣祖 癸巳에 生하여 道學文章으로 江右 一世에 冠絶했다. 院의 老先生(南冥)以後一人者라 稱했다. 仁祖 孝宗 顯宗 三朝에 遺逸로 여러번 朝廷에서 불렀으나 나가지 않고 오직 學問에 專進했다. 二十歲에 德川書院에 들어가 南冥學記를 校正하고 南冥年譜 文集 師友淵源錄을 校訂했으며 德川 龍岩 兩書院의 山長을 맡아 南冥學의 闡明에 貢獻했다. 朝廷에서 禮訟이 벌어지때 國王이 御史 南九萬을 파견하여 質問했으며 米菽을 下賜했다. 이들에 의하여 江右地方의 儒學風이 steadily 계승되어 내려왔다.

韓末에 내려오던 江右地方에 星州에서 寒洲 李震相이란 巨儒가 나와서 性理學을 大成했다. 그는 退溪學統에 屬하나 江右地方의 風土에서 그의 學이 完成되었다. 그리고 그의 學說은 陶山으로 부터 호된 비판도 받았다. 그의 門人에 俛宇 郭鍾錫이란 大儒가 나와 主理學說의 發達을 꾀어왔다.⁵¹⁾ 俛宇는 3·1 운동때 儒士로서 儒林의 독립운동인 巴里長壽의 主動者였다. 그의 門下에 心山 金昌淑이 배출되었다. 心山은 東岡 金宇頤의 後孫으로 獨立 鬭爭에 積極한 투쟁을 전개하였고 祖國光復後는 李承晚政權下에서 反獨裁 투쟁과 民族正氣의 宣揚에 盡力했다. 韓末의 名儒로 嶺南左道에 若臨하던 儒者로는 俛宇의 門人으로 海峯 河謙鎭, 淵軒 河禹善의 二河先生과 心齋 曹兢燮 天才로 夭折한 中山(文卿) 朴章鉉과 壽를 누린 重齋 金梲이 나왔고 寒洲 門人으로 後山 許僉와 勿川 金鎭祐 小訥 盧相稷 등이 江右學派 掉尾의 光焰을 吐한 名儒들이었다. 그 中에서도 河禹善은 江右學派 江右儒學의 總本山인 總川書院 院任을 맡아 儒契를 만들고 東齋를 세우고 德川淵源錄을 편찬하여 韓末 江右 諸儒中 江右學派의 純粹 正統이었다.

Ⅱ. 結 言

이로써 嶺南 儒學 中에서 道學의 兩大 山脈의 하나인 江右學風과 그 學派를 살펴 보았다. 江右學派의 淵源은 山林學派의 宗師이던 南冥 曹植의 學에 發源한다. 南冥의 學은 오로지 濂洛關閩之學이요 이 性理學에 바탕한 反躬體驗과 持敬實行이 그의 學의

50) 南冥先生別集 師友錄 私淑條

51) 玄相允, 朝鮮儒學史 李震相條, 同郭鍾錫條

要諦였다. 72세로 세상을 떠나기까지 山林에서 오로지 學問 연구와 修行과 教育에만専念하여 그의 思想에 薰陶된 門徒가 크게 太盛하여 江右學派가 形成되었다.

南冥의 豪放剛直한 性品과 壁立千仞의 氣慨 節義는 이 學風의 根幹을 이루어 그대로 鄭仁弘에 계승되었다.

南冥 曹植, 來庵 鄭仁弘에 의하여 이루어진 江右學風은 15世紀 16世紀에 있어서 朝鮮의 發達된 性理學이 지나치게 空理 空論으로 흘러 思辨的인 理氣論爭이란 空疏한 理論에만 흘러 將次 到來할 空前의 民族國家 土崩之禍를 外面하여 欺世盜名만 일삼는데 대한 頂門一鍼의 자극을 주어 비판하고 拯出蒼生의 經世濟國의 經論을 펴고 實踐躬行 知行合一을 主張한 것은 江左의 退溪學派에 對照된다. 南冥은 知行合一 實踐躬行 持敬居義를 위하여 四七理氣論을 祖述치 않고 오직 聖賢의 學을 孜孜히 工夫하여 割記한 「學記類編」과 銘箴을 남겼을 뿐이다.

江右學派에는 吳純 鄭述 金宇頤 崔永慶 등 濟濟多士였으나 江右 諸儒中 가장 傑出한 偉人은 南冥의 高弟子인 來庵 鄭仁弘이다. 그는 가장 師傅를 존경하고 그의 敎學思想을 충실히 계승 傳授했던 儒者로서 이에 이르러 江右學派는 絶頂에 다다랐고 南冥의 追尊도 來庵에 의하여 極에達했다. 曹植이 大臣輔國崇祿大夫 議政府領議政兼世子師 諡文貞을 追贈 받은것은 모두 鄭仁弘의 힘이었고 南冥의 文集 學記 등이 이루어진 것도 그의 功이었다.

江右學風으로 인하여 慶尙右道가 敦化되고 義를 존중하는 美風을 아루하여 全國에서도 가장 훌륭한 儒林을 형성했다. 南冥의 思想을 받은 그의 門人들에 의하여 壬辰七年戰爭中에 救國義兵抗戰의 主役을 이 學派에서 배출시켰다. 郭再祐 鄭仁弘 金沔의 首倡舉義의 三大義兵將이 모두 江右學派의 猛將들인 南冥의 門人이었고 文緯 吳湫 趙宗道 李魯등의 빛난 義兵將이 모두 南冥의 門徒인 江右學派다. 이와같은 傳統은 단번히 계승되어 巴里長書事件이란 儒林獨立운동 참여의 大宗도 이 江右學派였다. 英祖實錄 卷52 16年庚申 12月辛丑條에

曹植學問門路不純正 故其門下出鄭仁弘 如荀卿之有李斯 而植居右道 故右道之人專尚氣 李混居左道 故左道之亂 人無犯者 至于今多有文學行誼者

라는 誤解 偏見은 시정되어야 한다. 南冥을 荀子, 來庵을 李斯에 비유한 편견과 江右地方을 叛逆의 鄕으로 간주한 편견은 마땅히 바로잡아야 한다. 이와같이 편협 고루한 封建王朝史觀의 視角을 교정해야 하며 江右學風學派의 南冥—鄭仁弘의 思想 계보는 재조명되어야 할 것이다.⁽⁵²⁾

(52) 初校를 보는데 李樹健博士의 「南冥曹植과 南冥學派」(民族文化論叢 第2,3輯)라는 高論을 接하였다. 처음부터 李博士의 論文을 接했다라면 本稿가 더 좋은 論文이 됐을 것이란 아쉬움을 누를 길 없었고 校正中 參考될이 많았다.